



#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기업 63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에 꼭 필요하지만 방치된 틈새 수요를 채우면서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꾀한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99퍼센트는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그 기업의 희망기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고, 또 그 감동으로 더 많은 사람의 동상을 이끌어 내는 일 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랑의 사람에 의한, 사랑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널리 기대합니다.

##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은 어떤 곳일까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도 다른 기업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은 출발점과 도착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흔히 ‘좋은 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세워지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사회적기업은 지나친 경쟁과 개발로 소외된 우리 이웃과 지구촌 저개발국에게 더불어 살아가자고 내미는 손길이 됩니다. 이 책에는 국내외 사회적기업 63곳의 생생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기업 63

**피플트리**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을 주도하다  
**힐 홀트 우드** 숲의 힘이 청소년을 변화시킨다  
**소다테아게넷** 청년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히포캠퍼스 독서재단** 도시 아이, 시골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도서관  
**모바일텔레센터**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한다  
**테이블포두** 아프리카 초등학생 급식 지원 프로그램  
**로카** 청소년 출소자의 새로운 전환점  
**틀러 산 호세** 빈곤 청소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군제이** 도시에서 버려진 옷, 가난한 이들을 돕다  
**리모션디자인** 개도국 장애인에게 의료 보조기구를  
**솔라 이어** 청각장애인 위한 가장 값싼 보청기  
**CVDW**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안경  
**원월드헬스** 가난한 이들의 제약회사  
**포메이션 카펫** 여성 노동 존중 아동 노동 근절  
**킵스타트** 빈농에게 적합한 머니메이커 펌프  
**고엘 공동체** 천연 염색으로 농민 자립에 희망을  
**마더하우스** 그 나라의 독특한 자원으로 승부한다  
**허니케어 아프리카** 지역에 적합한 농업으로 영세 농민에게 희망을

뒷날개에 이어서





발행일 2011년 3월 11일  
퍼넌곳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전화 02) 2110-7497  
팩스 02) 503-6623  
이메일 admin@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제작·기획편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값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책자에는 고용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수록되었습니다.
- 1장과 3장에 소개된 사회적기업은 국내에는 사례가 없는 해외 모델 위주로 실었습니다.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에 꼭 필요하지만 방치된 틈새 수요를 메우면서 시장과 공동체의 장점을 접목한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어느덧 네 돌을 맞아,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세상에 희망을 일구는 사회적기업 63』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발간한 『내 아들, 내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회적기업 51』이 사회적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 책은 글로벌 청년 사회적기업,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 등 새로운 모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산촌으로 유학을 간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배추를 키우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치는 ‘철딱서니학교’, 고령 은퇴자와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을 지원하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 한쪽 다리를 잃은 카말에게 인공무릎관절을 선물한 ‘리모션 디자인(re:motion designs)’ 등 진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99퍼센트는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눔’은 ‘키움’의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그 감동으로 더 많은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리 이웃과 사회적기업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 차례

발간사 3

## 1장 젊은이들의 미래, 가난한 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사회적기업 \_글로벌 청년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을 주도하다 — 피플트리	10
숲의 힘이 청소년을 변화시킨다 — 힐 홀트 우드	12
청년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 소다테아게닛	14
도시 아이, 시골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도서관 — 히포캠퍼스 독서재단	16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한다 — 모바일텔레센터	18
아프리카 초등학생 급식 지원 프로그램 — 테이블포투	20
청소년 출소자의 새로운 전환점 — 로카	22
빈곤 청소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 톨러 산 호세	24
도시에서 버려진 옷, 가난한 이들을 돕다 — 군제이	26
개도국 장애인에게 의료 보조기구를 — 리모션디자인	28
청각장애인 위한 가장 값싼 보청기 — 솔라 이어	30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안경 — CVDW	32
가난한 이들의 제약회사 — 원월드헬스	34
여성 노동 존중 아동 노동 근절 — 포메이션 카펫	36
빈농에게 적합한 머니메이커 펌프 — 킥스타트	38



천연 염색으로 농민 자립에 희망을 — 고엘 공동체	40
그 나라의 독특한 자원으로 승부한다 — 마더하우스	42
지역에 적합한 농업으로 영세 농민에게 희망을 — 허니케어 아프리카	44
태양열 조리기로 연기 없는 마을 — 가디아 솔라	46
일대일 소비와 기부로 희망을 만드는 신발 — 탐스슈즈	48
전력망에서 소외된 시골에 전기를 공급하다 — STA	50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 베어풋 칼리지	52

## 2장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회적기업 \_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전통을 세우는 목공 기술인 — 화천한옥학교	56
지역 주민의 삶에 기반한 여행 — 공정여행 풍덩	58
전원 마을 짓는 생태 기업 — 이장	60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위해 — 부안시민발전소	62
하천도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 안덕환경사랑회	64
방과 후에 배추를 키우는 아이들 — 철딱서니학교	66
도시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상생 — 서천군귀농인협의회	68
지구를 살리는 순환 영농, 유기농 채소 — 영농조합법인 새벽	70
새싹과 육묘를 키우며 — 청람	7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74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76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78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다 — 진안군뿌리협회	80
민간 최초의 친환경 유기농 업체 — 흙살림	82
IT로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한 — 송천 떡마을	84
시골집 어머니가 보내주는 먹거리 — 흥성텃밭공동체	86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 — 청송시니어클럽	88
지역을 이롭게 하는 친환경 농산물 — 토리식품	90
비지로 만든 친환경 버거 — 생명살림 올리	92
최고의 관광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94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마을 — 임실 치즈 마을	96
도농 간 교류를 사업화하다 — 세심마을	98

### 3장 일자리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기업 \_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

공예품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 콧아트	102
고용을 위해 빵을 굽는 제과점 —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104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	106
알코올 중독자에 희망 주는 기업 — 리빌드 리소스	108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돕는다 — 쇼 트러스트	110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정보 격차 해소한다 — 퍼스콜라	112
저소득층 가구 자산 설계 돕는다 — 셸프	114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기업 인턴 제공 — 주마 벤처스	116
위기 청소년에 손 내미는 기업 — 뉴 도어 벤처스	118
젊은이들에게 일할 의욕 준다 — K2 인터내셔널	120
젊은 잠재력 일깨워 경력 쌓는다 — 에바 피닉스	122
가난한 이들 위한 구직 전문 서비스 — 신시내티 워크	124
직업 구하는 모두에게 열린 문 — 주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	126
빈곤 여성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 — 위민즈 빈 프로젝트	128
개도국 여성 위한 보건 위생 교육 — SHE	130
정신 건강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 루비콘 프로그램	132
장애인과 일하는 것,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 — 램플로이	134
당신의 기부가 장애인을 돕는다 — 굿월	136
화재의 아픔, 세차장에서 씻어낸다 — 선샤인	138







## 1장

# 젊은이들의 미래, 가난한 나라의 장래를 밝히는 사회적기업 \_글로벌 청년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을 주도하다  
피플트리



✉ [people@peopletree.co.uk](mailto:people@peopletree.co.uk)  
🏠 <http://www.peopletree.co.uk>

영화 <해리 포터>의 헤르미온느 역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엠마 왓슨. 그녀가 수작업으로 의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의 생산 현장을 찾았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유기농 면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고, 천연 염료로 염색하고, 재단하고, 박음질하여 옷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엠마는 인터뷰에서 호소하듯 말했다.

“아주 낮은 비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생산해 내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과 공정무역 패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겨우 2~3파운드(약 3600~5550원) 하는 패스트 패션 매장의 티셔츠를 살 때 우리는 과연 이 옷을 만든 사람에게 얼마의 몫이 돌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해요. 공정무역 패션의 옷은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만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엠마 왓슨이 또래 젊은이들에게 공정무역 패션을 열정적으로 홍보하게 된 데에는 바로 피플트리(People Tree)와의 만남이 있었다. 피플트리는 패션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정무역 친환경 브랜드다.



피플트리는 공정무역 친환경 패션을 주도하는 브랜드다. 1991년 일본에서 환경 단체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를 설립한 사피아 미니는 1995년 환경 보호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 컴퍼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1년 피플트리를 본격 론칭했다. 최근에는 영국으로 본부를 옮겨 유럽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피플트리의 모든 상품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수공으로 제작된다. 피플트리는 개발도상국 의류 생산자들이 노동을 값싸게 착취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 유기농 면 생산을 장려하고 천연 염료나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염료만을 사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친환경 패션을 추구한다.

피플트리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 피플트리는 일반 의류업체에 비해 세 배가량의 비용을 들여 옷을 만들고, 규모가 크지 않은 생산자도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산 주문과 동시에 결제 대금의 50퍼센트를 선지급한다. 한편, 홍보나 마케팅에는 아주 적은 비용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플트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원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피플트리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사피아 미니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가장 업적이 뛰어난 사회적기업가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영국 황실로부터 대영제국 멤버 훈장(MBE)을 받기도 했다.

숲의 힘이  
청소년을 변화시킨다  
힐 홀트 우드



☎01636-892836

🌐<http://www.hillholtwood.com>

힐 홀트 우드(Hill Holt Wood)는 300년이 넘는 오래된 숲의 이름이자 이 숲을 무대로 2002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이름이다. 이 기업이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주로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에서 배제되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또 소득이 없거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다.

숲을 기반으로 그에 맞게 특화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도 숲으로부터 나오는 소재에 친환경 콘셉트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힐 홀트 우드를 특별한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청소년에게 숲과 공동체가 주는 전인성을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것이 여타 청소년 직업 훈련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진 힐 홀트 우드는 숲속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숲을 보존하며 환경오염이 없는 주거시설을 연구, 보급하는 일에 각별히 애정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힐 홀트 우드의 청소년들은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에 이로운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운다. 숲에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힐 홀트 우드는 1997년 숲을 보존하기 위해 모인 힐 홀트 우드 위원회가 숲을 기반으로 소외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사업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재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삼림 보존, 원예, 파머컬처, 철공, 목공, 그린 목공, 동물 보호와 양육, 산림 관리 기술, 예술과 공예, 커뮤니티 경영 등으로 다양하다.

장인적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숲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상품 제작과 판매로 이어진다. 수려한 장식이 새겨진 전기톱, 기계로 둥글게 다듬은 맵시 있는 술잔과 접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중세식 테이블, 퇴비를 사용한 유기물 화장실 등이 대표적이다.

힐 홀트 우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정부나 지자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청소년 고용 및 직업 훈련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숲을 활용한 신상품을 계속 개발하여 판매 비중도 늘려 나가고 있다. 이 회사의 운영 원리 키워드는 경제, 커뮤니티, 기회, 자연, 지속 가능성이다. 힐 홀트 우드는 미디어, 인터넷, 출판물 통해 사업 철학을 알려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도 주목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 자선단체, 의회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며, 힐 홀트 우드의 공동 소유주 카렌과 로우드롭은 영국 사회적기업 홍보대사 33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조직 운영은 직원과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동등한 소유 구조와 의사 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

# 청년들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소다테아게넷



☎ 042-527-6051

🌐 <http://www.sodateage.net>

“모두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직업과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07년부터 청년 사회적기업의 모델로서 한국에도 소개된 구도 케이 소다테아게넷(sodateage) 이사장의 말이다.

소다테아게넷은 우리말로 길러 준다는 의미를 가진 ‘소다테아게’와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은 이름이다. 니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도 케이 이사장은 “청년들이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려면 자신과 사회,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2001년에 소다테아게넷을 설립했다. 이후 2004년에 법인화했고, 현재 직원 50여 명, 연매출 2억 엔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소다테아게넷은 사회 부적응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소다테아게넷 구도 케이 이사장은 “우리는 좋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PT도 잘 해야 하고 마케팅도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논리가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2001년 4월 소다테아게넷은 NPO 법인 청소년 자립 지원 센터와 함께 벌인 ‘등교 거부, 히키코모리 관계 시설 실태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5월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 9월에 청소년 취업 노동 기초 훈련 프로그램(직업 훈련)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커리어 개발 사업부를 설립하였고, 그해 10월 후생노동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역 젊은이의 직업 자립을 위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했다. 2007년에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소다테아게넷의 주요 사업은 청년 취업·노동 지원 사업, 기업 연계 사업, 직업 능력 향상 컨설팅 사업, 보호자 지원 사업, 경력관리 교육사업, 관공서 솔루션 사업 등이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연간 1만 명이 넘는 청년과 접촉하고 있으며 GE 컨슈머 파이낸스 주식회사나 제이 주식회사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후생노동성 등 정부 기관과도 꾸준히 연계를 맺고 있다. 또 공립학교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소다테아게넷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복지에서 세금이 유용하게 쓰이고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지의 청년 지원 기관에서 기획, 운영을 연계하고 있다.

도시 아이, 시골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도서관  
히포캠퍼스 독서재단



✉ [learnmore@hippocampus.in](mailto:learnmore@hippocampus.in)  
🏠 <http://hrfindia.org>

IT 업종에 종사하던 우메시와 비말라 말호트라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8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1999년 네 살배기 아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인도 생활이 지루하기만 했다. 우메시 부부 역시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하던 캘리포니아의 도서관들이 무척이나 그리웠다. 그사이 인도에서 설립했던 IT 회사를 정리하며 인생의 전기를 맞은 우메시는 2003년 부인과 의기투합하여 자신들이 꿈꾸던 도서관을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학습과 기억에 관계하는 뇌 부위인 '히포캠퍼스(해마)'에서 따왔다.

히포캠퍼스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 책을 보기도 했고, 그림 그리거나 모형 만들기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늘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우메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방갈로르 빈민가의 아이들을 떠올린 것이다. 그는 히포캠퍼스 독서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도시의 빈곤층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을 위한 생기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펼쳐 나갔다.



인도의 빈곤층 아이들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세대가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로부터 독서 지도를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교과 과정에 따라 가르치므로 독서 경험이 충분치 않은 빈곤층 아이들은 따로 독서 능력을 키울 기회가 없다. 좋은 책은 물론이고 사서나 독서 지도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히포캠퍼스 독서재단은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되었다. 도서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이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일례로 GBR(Grow By Reading)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독서 수준을 여섯 가지 단계로 나누고 여섯 가지 색상의 라벨로 각 단계별 도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체계적인 독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좋은 책을 선별하여 도서 목록을 작성해 배포하고 사서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히포캠퍼스 독서재단은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NGO와 협력하고 있으며, 카르나타카 주 일대의 70여 개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포괄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도 각지의 시골 지역으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타밀 Nadu 주에 96개 도서관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한다  
모바일텔레센터



✉ info@mobiletelecenters.com  
🌐 http://www.mobiletelecenters.com

우리 시대에 '컴맹'은 '문맹'만큼이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약하는 결정적 요소다. 이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닐라 시내 43개의 공립 고등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한 탓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있는 장비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것들뿐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닐라의 다섯 청년이 뭉쳤다. 이들은 '이트라이크(eTrike)'라는 삼륜 차량에 노트북 세 대를 비롯해 무선인터넷 장치, 프린터, 휴대폰, 카메라 등의 IT 장비를 싣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교육한다.

다섯 청년은 2000년에 시작된 필리핀 최초의 텔레센터(telecenter)인 GLOW에서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배웠다. GLOW는 IT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비영리기구 오픈 IT가 필리핀 마닐라에 세운 텔레센터다. 텔레센터는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컴퓨터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GLOW가 배출한 이 다섯 청년이 2007년에 드디어 모바일텔레센터(Mobile Telecenters)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운 것이다.



2007년 다섯 명의 청년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 모바일텔레센터는 마닐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모바일텔레센터는 컴퓨터와 무선인터넷 장비 등을 구비해 놓은 '이트라이크'라는 차량을 몰고 정보통신 기술 교육이 필요한 마닐라 시내 공립학교를 찾아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트라이크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자금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돕는 기관인 YSEI(Young Social Enterprise Initiative)로부터 지원받았다.

모바일텔레센터가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트라이크 프로젝트는 40여 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보통 하루 30명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모바일텔레센터에 연락해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모바일텔레센터는 이트라이크를 끌고 학교로 찾아가 하루 동안 학생들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입문 강의와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사용법 등이다.

모바일텔레센터는 방문 교육의 대가로 학교에서 소정의 교육비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트라이크를 운행하면서 IT 장비 및 휴대폰, 선불전화카드 판매, 휴대폰 수리 및 충전 서비스, 컴퓨터 수리, 디지털 사진 촬영 및 인화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익 사업을 병행하여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도록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모바일텔레센터는 2년간의 기초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해 주거나 졸업 후 IT 분야로의 취업을 돕는 등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 아프리카 초등학생 급식 지원 프로그램 테이블포투



✉ [info@tablefor2.org](mailto:info@tablefor2.org)

🏠 <http://www.tablefor2.org>

2010년 9월, 고구레 마사히시는 최근 가뭄이 계속된 에티오피아 호젠을 찾았다. 호젠 지구의 농지는 한눈에 보기에다 바짝 메마르고 척박했다. 극심한 물 부족으로 식수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을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이미 영망이 되었으며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다.

호젠에는 11개 마을에 5만 5천여 명이 흩어져 살고 있고 1만 6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있었다. 학생들은 굶은 배를 움켜쥐고 뜨거운 태양 아래 몇 킬로미터를 걸어 학교에 가다 보니 수업 중에 쓰러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가뭄이 초래한 식량 부족이 학교 급식까지 어렵게 하면서 교육의 기회마저 위협하였다.

고구레 마사히시는 이곳에 대한 테이블포투(Table For Two)의 지원을 약속했다. 테이블포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균형 해소와 모든 이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테이블포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일인당 20엔을 기아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한 끼 급식으로 지원한다.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 명이 기초 영양 결핍 상태인 기아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10억 명이 비만과 당뇨 등 영양 과다로 인한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지구를 하나의 밥상으로 생각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테이블포투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러한 식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고구레 마사히사가 일본에서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두 사람의 식탁’이라는 뜻의 테이블포투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테이블포투의 주요 사업은 개발도상국 급식 지원 프로젝트이다. 한 사람이 건강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 값 중 20엔이 테이블포투에 기부되고, 테이블포투는 이 돈을 기아가 심각한 지역의 학교 급식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당은 건강 식단을 개발해 테이블포투 로고를 붙이고 해당 식단의 음식 값에서 20엔씩 기부한다.

테이블포투 기부 프로그램은 참여 방법이 매우 쉬워서 3년 만에 참여 법인이 280개를 넘어서었다. 또 식당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카페, 인터넷 식품관,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미국에도 단체가 설립되었다. 기부금은 2007년부터 아프리카의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학교 급식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어린이들에게도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 청소년 출소자의 새로운 전환점 로카



☎ 617-889-5210

🌐 <http://www.rocainc.org>

톰은 십 대 때 갱단의 일원이었다. 미래가 어두웠던 톰의 삶은 로카(Roca)를 설립한 매리 볼드윈의 믿음과 격려 속에 바뀔 수 있었다. 로카는 1988년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틴 챌린지 펀드'로부터 13만 4천 달러를 지원받아 10대 임신부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출발했다.

현재 로카는 첼시, 리베르, 이스트보스턴, 스프링필드 등에 거주하는 14~24세의 청소년 출소자, 탈학교 청소년, 미성년 부모, 이민 가정 청소년에게 교육, 고용, 생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또 청소년 출소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이민자 부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기르도록 돕는 등 각각의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지지대를 형성하여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카는 지금까지 1만 5천 명의 청소년을 긍정적 삶으로 이끌었다.



로카의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해악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으로 문제를 풀어낸 후, 대안 교육과 직업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인턴십 연계 고용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직업 현장에 고용되어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 지역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실외 청소, 건설 현장 정리 등의 일을 시간당 8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고 하게 된다. 그 외에 로카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신탁 기금(Children's Trust Fund)과 보스턴의 아동 단체가 지원하는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50명의 십 대와 처음 부모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로카는 비영리금융, 고위험군 청소년 업무, 지역사회 조직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1명의 풀타임 직원과 20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팀을 이루고 있다. 로카의 이사회는 개발, 통신, 인적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카의 2009년 총매출은 개인 보조금과 기부금이 628만 9507달러로 전체의 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정부 지원금이 261만 4598달러로 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톨러 산 호세



☎ 714-543-5105

🌐 <http://www.tallersanjose.org>

1만 평방피트의 창고에서 저학력, 미숙련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들에게도 수학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집단을 이뤄 몸으로 익히는 수학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다. 건축 원리를 이해하고 비용을 추정하며 설계도를 읽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건설기술 아카데미로 불리는 16주 과정을 통해 안전 의식, 건축 일반 이론, 실습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그간의 불규칙적인 삶을 개선하고 삶의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성취감과 함께 부상으로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 세트가 달린 공구 벨트를 받는다.

일찍이 알렌은 15세에 지역 갱단에 들어갔다가 감호 시설에 입소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톨러 산 호세(Taller San Jose)에 참여했다. 그는 이곳에서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는 법을 익혔다.

톨러 산 호세는 '청 오렌지 조셉' 소속 수녀들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풀기 위해 1995년 설립했다.



톨러 산 호세는 18~28세의 저학력, 미숙련, 비고용 청소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대 아카데미인 의료, 사무직, 건설기술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다. 수련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16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다. 또 청소년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7단계로 된 '성공을 위한 계단(Steps to Success)'을 개발하여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 과정 이수, 컴퓨터 기본 기술 습득, 운전 면허증 취득, 투표권 등록, 은행계좌 개설 및 사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단계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안정된 직장 취직이다. 이러한 지원은 졸업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나아가 톨러 산 호세는 졸업생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06년 '호프 빌더'라는 건설벤처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지역 협력을 통해 저가주택을 건축, 공급하며 지역의 주택문제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톨러 산 호세가 있기까지는 '세인트 조셉 헬스 시스템'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있었다. 세인트 조셉 헬스 시스템은 톨러 산 호세를 초기부터 지원했는데, 이곳 직원들은 톨러 산 호세 이사회 구성원 등으로 참여하며 35만 달러를 기부해 왔다. 2002년에는 건축기술 아카데미를 위한 1만 평방피트 토지 구입에 용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6년 톨러 산 호세는 용자금을 상환했고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 외에도 톨러 산 호세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졸업생들에게 일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도시에서 버려진 옷,  
가난한 이들을 돕다  
군제이



✉ anshugoonj24@gmail.com  
🏠 <http://www.goonj.org>

대학 시절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던 안슈 굽타는 델리의 거리에서 한 젊은이의 주검을 발견했다. 얇고 해진 옷을 걸친 시체 주변에는 빈 술병과 먹다 만 음식이 놓여 있었다. 거리에는 그렇게 사망한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안슈 굽타가 취재한 '시체 수거인' 하빔에 따르면 겨울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아진다고 했다.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옷이 없어서 그렇게 동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은 가난한 여성들에게서 자궁경부암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월경 기간 중 비위생적인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가난한 집 여성들은 더러운 형겔 조각을 대충 빨아서 생리대로 쓰거나 심지어 신문지, 모래, 재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안슈 굽타는 군제이(GOONJ, '메아리'라는 뜻)를 만들었다. 도시에서 남은 의류를 수거하여 인도 각지의 저소득층에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1998년 단 67벌의 헌옷을 가지고 시작한 군제이는 현재 인도의 21개 주에서 매달 50여 톤의 의류와 천을 수거하고 가공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면 두툽한 옷이 없어 고통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위생적인 생리대를 마련하지 못해 파상풍과 자궁경부암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도시 한편에서는 호화찬란한 갖가지 의복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천이 버려지고 있다.

군제이는 버려진 옷과 천을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필요한 곳에 연결해 줌으로써 빈곤 문제 해소 및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개발을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 온 의복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주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옷 기부가 이뤄지는데, 이는 단발적 일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구체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제이는 평상시에 도시에서 버려지는 다량의 옷과 천으로 방한복과 이불을 만들어 시골에 보급하고 가방, 지갑, 매트 등의 재활용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또 우물을 파거나 다리를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주민들에게 작업복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자치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깨끗이 세탁한 천으로 생리대를 만들어 20만 명의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인도 각지의 150여 개 단체와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군제이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인도에서 '올해의 NGO 상'을 받기도 했다.

# 개도국 장애인에게 의료 보조기구를 리모션디자인



✉ [info@remotiondesigns.org](mailto:info@remotiondesigns.org)  
🏠 <http://www.remotiondesigns.org>

자이푸르 진료소에 막 도착한 열일곱 소년 카말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2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한 후 대나무 지팡이를 목발 삼아 살아왔다. 그러느라 양손에는 굳은살이 박이고 척추는 한쪽으로 휘었다.

카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왼쪽 다리를 대신해 줄 의족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의족은 카말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이런 카말에게 리모션디자인(re:motion designs)이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것이다. 리모션디자인은 카말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절단장애인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인공무릎관절 자이푸르니를 개발해 싼값에 내놓았다.

자이푸르니가 장착된 의족을 처음 착용해 본 카말은 조심조심 걸음을 땀다. 그리고 금세 진료소 이곳저곳을 활보했다.

5개월 후 리모션디자인 연구원들이 자이푸르의 진료소를 다시 찾았을 때 카말은 그곳에서 환자들에게 점심을 날라다 주고 있었다. 양손의 자유를 되찾은 카말은 진료소 도우미라는 일자리카까지 얻은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사고,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절단 장애인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다행히 선진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를 생산하고 있으나 수천 달러, 많게는 수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고가다. 전 세계 절단장애인의 80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의료 보조기구가 매우 절실한 상태다.

이에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조엘 새들러와 에릭 토셀이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한 절단장애이용 보조기구를 생산하고자 인도 자이푸르에서 리모션디자인을 설립했다. 첫 상품은 인공무릎관절 '자이푸르니(JaipurKnee)'. 폴리머를 사용해 만든 자이푸르니는 고성능 다축 무릎관절임에도 2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자이푸르니가 등장하기 전까지 무릎 위쪽을 절단한 장애인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인공무릎관절을 사용했다. 그러나 자이푸르니 덕에 개발도상국의 절단장애인들까지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이푸르니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09년 최고 발명품 50선'에 선정되었으며 CNN이 선정한 '2009년 최고의 건강 관련 신기술 10선'에도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4백 명 이상의 절단장애인들이 자이푸르니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리모션디자인은 인공팔꿈치관절인 '자이푸르엘보(JaipurElbow)'도 개발해 현재 인도에서 임상 시험 중에 있다.

# 청각장애인 위한 가장 값싼 보청기 솔라 이어



☎ 11-2614-9241

🌐 <http://www.solarear.com.br>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오지 마을 오체까지는 아주 먼 길이다. 8년 전, 하워드 와인스타인은 캐나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칼라하리 사막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그 메마른 땅을 찾았다. 비정부 단체인 캐나다세계대학서비스(WUSC)가 그를 오체에 파견한 것이다. 그곳에 회사를 세워 아프리카의 청각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를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가난한 아프리카 상황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란 있을 수 없었다.

“배터리 때문입니다. 하나에 1달러인데 고작 한 주 정도 갑니다. 하루 1달러가 평균 임금인 나라에서는 엄청난 고가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인스타인은 동분서주했다. 기업가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전자제품 전문가들과 제조업체의 도움을 얻어 마침내 새로운 보청기를 선보였다. 귀에 감아 거는 작은 플라스틱 모양새는 여느 보청기와 다를 바 없지만, 충전 가능한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보청기였다. 값도 채 100달러가 안 된다. 전 세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값싸고 성능 좋은 보청기가 탄생한 것이다.



솔라 이어는 개발도상국 청각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솔라 이어는 보청기 자체의 생산 가격도 저렴하지만, 기존의 배터리 대신 태양열 충전지를 사용함으로써 보청기 유지비를 크게 절감시켰다. 또 솔라 이어 덕분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청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보청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솔라 이어는 청각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솔라 이어의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직원은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나아가 교육 소외 지역인 남미 사골의 가난한 청각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보청기용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 주고, 일주일 정도 사용한 뒤 폐기되는 배터리의 양도 획기적으로 절감해 인간뿐 아니라 환경에도 이로움을 주고 있다.

솔라 이어의 상품은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누구나 솔라 이어의 제품을 참조하여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보청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솔라 이어의 보청기는 여러 재단과 NGO를 통해 40여 개국에 보급되어 약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솔라 이어는 브라질에 근거를 두고 상파울루 대학교 기술진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보청기를 개발하고 있다. 솔라 이어의 보청기와 태양열 충전지 및 충전기는 보츠와나, 브라질, 멕시코 외에도 협력 기관을 통해 중국, 튀니지,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안경 CVDW



✉ [info@vdwoxford.org](mailto:info@vdwoxford.org)

🏠 <http://www.vdw.ox.ac.uk>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사는 아서 위커는 몇 년 사이 부쩍 나빠진 시력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 곳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해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게다가 목수 일을 돕던 아들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가족은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에 달한다. 다행히 안경 산업이 발달하여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안경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문제는 안경을 맞춰 줄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전문 검안사가 매우 적어서 아프리카 국가에선 인구 800만 명당 1명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조슈아 실버 박사는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맞출 수 있도록 도수 조절이 가능한 액체 안경을 내놓았다. 안경을 쓴 채로 렌즈에 투입되는 액체의 양을 조절해 시력에 맞추는 방식이다.



CVDW(The Centre for Vision in the Developing World, 개발도상국 시력센터)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설립되었다. 시작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원자물리학을 가르치던 조슈아 실버 박사가 만들어 낸 ‘어드스펙스(Adspecs)’라는 이름의 액체 안경이다. 이 액체 안경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안경을 쓴 채로 양쪽 안경다리 부분에 부착된 주사기의 톱니바퀴를 앞뒤로 돌리면서 본인의 시력에 맞게 조절한다. 그러면 주사기를 통해 투입되는 액체의 양에 따라 렌즈의 두께가 미세하게 변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도수의 렌즈가 된다. 그리고 나서 안경다리에서 주사기를 분리한다. 주사기를 통해 투입되는 액체는 실리콘 오일로, 이 물질은 물처럼 쉽게 증발하지 않아 높은 도수의 오목렌즈나 볼록렌즈에도 효과적이다.

액체 안경의 가격은 현재 19달러 정도로 일반 안경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다.

현재 15개국에서 3만여 명이 CVDW의 액체 안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CVDW는 개발도상국의 시력 교정 문제 해결을 위해 창설된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비전 2020(Global Vision 2020)과 협력하여 2020년까지 시력 교정이 필요한 10억 명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가난한 이들의 제약회사 원월드헬스



✉ [info@oneworldhealth.org](mailto:info@oneworldhealth.org)

🏠 <http://www.oneworldhealth.org>

딜립은 현재 마을 크리켓 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선수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딜립은 죽음의 문턱에서 있었다. 매년 전 세계 50만 명의 생명을 앗아 가는 칼라아자르, 즉 흑열병에 걸렸던 것이다. 당시 인도 북부에 흑열병이 창궐했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한 채 집에서 죽어 나갔다.

기적처럼 딜립의 생명을 구한 것은 새로 개발된 치료약이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이 약 덕분에 딜립을 비롯해 수백 명의 환자가 목숨을 건졌다. 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다름 아닌 원월드헬스(One World Health)라는 사회적기업이다.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90퍼센트가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연구개발비 중 저개발국의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은 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런데 2004년 원월드헬스가 내놓은 흑열병 치료약으로 95퍼센트의 환자들이 완치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 치료약은 175달러인 반면 원월드헬스의 약은 완치되기까지 10달러면 충분하다.



원월드헬스는 빅토리아 헤일이 풍토병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효능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신약을 개발하고자 200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저개발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흑열병, 말라리아 등의 질병은 현대 제약 기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지만 기존의 제약 회사들은 채산성을 이유로 치료제 연구와 개발에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현존하는 치료제는 가격이 비싸 저개발국 빈민들이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 때문에 적절한 약만 있으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이에 원월드헬스는 저개발국에 집중된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능하고 헌신적인 연구원을 모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개발한 다음 저개발국의 기업, 비영리 병원 및 기관과 협력해 신약에 대한 의학 연구를 시행하고 승인받은 신약을 생산, 보급한다.

원월드헬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약은 인도 등지에서 창궐하는 흑열병 치료제이다. 치료제의 빠른 생산과 보급을 위해 원월드헬스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도의 제약업체에 특허권까지 넘겼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2백만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설사 질환과 매년 3~5억 명을 감염시키며 이중 1백만 명이 넘는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말라리아를 치료할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 여성 노동 존중 아동 노동 근절 포메이션 카펫



✉ [info@formationcarpets.com](mailto:info@formationcarpets.com)

🏠 <http://www.formationcarpets.com>

네팔의 주력 수출 품목인 수공 카펫 산업은 15만 명 이상의 아동을 착취하고 있다. 네 살부터 열네 살까지의 아이들이 납치와 인신매매로 공장에 넘겨져 카펫을 만든다.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시력 손상에 시달리고, 환기 시설도 없는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장시간 노동을 하느라 몸이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도 다반사고, 날카로운 도구에 상해를 입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동 노동 문제도 심각하지만 네팔 카트만두에만 1천여 곳에 이르는 카펫 공장들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13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공장은 어둡고 비좁으며 먼지로 가득하다. 여성 직원들은 그런 곳에 자녀들까지 데려오곤 한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포메이션 카펫(Formation Carpets)은 이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유지되고 있는 네팔의 카펫 산업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설립되었다. 1990년 카트만두에서 단 6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으며, 아동 노동 근절과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네팔을 대표하는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포메이션 카펫은 카펫을 제조, 수출하는 네팔의 사회적기업으로 인권과 노동, 환경에 대한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조명과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또 직원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카트만두 시내의 의료 기관과 협력해 직원 건강관리에도 힘쓴다. 한편 직원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택시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장학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포메이션 카펫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슈레스타 샤는 1995년 '네팔 러그마크'가 설립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 노동 근절과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제 러그마크는 각 카펫 공장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여 심사 기준을 통과한 공장의 상품에 한해 러그마크(Rugmark)라는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아동 노동으로 만들지 않은 카펫'을 의미하는 러그마크 인증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었다. 한편 러그마크는 공장 조사 과정에서 구출한 피착취 아동의 재활을 돕는 일도 병행한다. 슈레스타 샤는 네팔 러그마크의 회장을 거쳐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2~2003년에 국제 러그마크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러그마크의 활동 덕에 1996년만 해도 11퍼센트에 달하던 네팔 카펫 산업의 아동 노동 비율이 2009년 조사에서는 3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러그마크 인증을 받은 네팔 카펫은 미국, 유럽 등지로 약 백만여 개가 수출됐다.

## 빈농에게 적합한 머니메이커 펌프 킵스타트



✉ info@kickstart.org

🏠 <http://www.kickstart.org>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더 이상은 주린 배를 움켜쥐며 잠들지 않아도 돼요.”

케냐 엘도렛의 농부 응젠가와 가토니 부부는 지난 2008년 3월 케냐 대통령 부정선거로 촉발된 폭동으로 집을 잃었고 경작하던 밭은 황폐해졌다. 어쩔 수 없이 두 내외와 다섯 자녀는 정부가 난민을 위해 마련한 텐트에서 다섯 달을 보내야 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응젠가는 머니메이커 펌프를 처음 만났다. 사회적기업 킵스타트(Kick Start)가 만들어 판매하는 머니메이커 펌프는 사람이 발로 밟아서 작동시키는 관개용 펌프다. 작고 가벼운 장비지만 7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다.

정부의 구제지원금으로 머니메이커 펌프와 호스를 구입한 응젠가는 건기에도 밭에 물을 대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작황은 순조로웠고 응젠가 가족은 다시 농작물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이 붙은 응젠가 부부는 현재 경작지를 늘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폭동으로 살림이 어려워진 이웃도 돌보고 있다.



킵스타트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빈곤을 퇴치하고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킵스타트의 설립자인 마틴 피셔와 닉 문은 1991년 킵스타트의 전신인 어프로텍(ApproTEC)을 만들어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다. '적정 기술'이라는 의미의 어프로텍은 제일 먼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가난한 농민들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자 사람이 발로 밟아서 작동시키는 휴대용 관개 펌프인 머니메이커 펌프를 개발해 30~90달러 정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머니메이커 펌프는 아프리카에서 건기는 물론이고 연중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생산량을 100~400퍼센트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펌프를 통해 케냐에서만 10만 개가 넘는 소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매년 케냐 국내총생산의 0.6퍼센트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킵스타트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이는 단순히 펌프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의 돈벌이를 돕는 것이 킵스타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 지속 가능한 유통망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며, 수리와 교체 등의 사후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케냐뿐 아니라 탄자니아와 말리로 진출해 그 효용을 검증받은 머니메이커 펌프는 여러 기관을 통해 현재 우간다, 잠비아, 수단, 르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천연 염색으로  
농민 자립에 희망을  
고엘 공동체



☎ 12-249-147 ✉ goelcommunity@yahoo.com  
📍 206, St. 12 BT, Bung Tum Pung, Mean Chey, Phnom Penh

미국에서 항공학을 전공하던 한정민 씨는 1997년 IMF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다니다 2004년 돌연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렇게 만난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정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도, 종교도 아닌 얼마간의 생활비라고 생각한 한 씨는 시골 지역의 가난한 이들에게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렇게 해서 찾은 아이템이 바로 천연 염색이다.

한정민 씨와 부인 서윤정 씨는 한국에서 천연 염색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현지 상황에 맞는 천연 염료와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그리고 2006년 6월 캄보디아 다케오 지방에서 현지 여학생 한 명과 고엘 공동체를 세우고 천연 염색 일을 시작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지역 농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현재 20명으로 식구가 늘어난 고엘 공동체는 천연 염료로 염색한 실을 인근 1백여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농민들이 수공 베를 이용해 이 실로 옷감을 짜면 고엘 공동체는 이 원단을 판매한다.



고엘 공동체는 캄보디아에서 한정민, 서윤정 부부가 가난한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감을 제공하고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천연 염색 제품을 생산한다.

고엘 공동체는 현지에서 나는 천연 재료로 실을 염색해 인근 농가에 외상으로 판매한다. 농민들은 이를 이용해 각 가정에 구비되어 있는 수공 베틀로 옷감을 짠다. 그러면 고엘 공동체는 이 원단을 공정한 가격에 사들여 캄보디아 공정무역협회(AAC)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어들에게 판매한다.

고엘 공동체는 이미 직조된 천을 염색하는 것(후염)이 아니라 실 상태에서 염색한 다음 직물을 만드는 선염 방식을 고수한다. 선염은 후염에 비해 염료가 깊숙이 침투하고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물이 덜 빠지고 오래 사용해도 색이 잘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에 고급 의류의 원단으로 더욱 각광받지만,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고엘 공동체처럼 방직 기계가 아닌 수공 베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일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고엘 공동체가 후염이 아닌 선염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고, 기계 방식이 흉내 내지 못하는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고엘 공동체는 전 과정에 캄보디아 농민들을 끌어들이어 가난한 농민들의 자립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나라의 독특한 자원으로  
승부한다  
마더하우스



✉ [global@mother-house.jp](mailto:global@mother-house.jp)  
🏠 <http://www.mother-house.jp>

게이오 대학 4학년 야마구치 에리코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워싱턴에 있는 한 국제기관의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었다. 평소 동경하던 일을 하게 되어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류 업무, 줄속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원조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그는 '현장을 모르면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최빈국 방글라데시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목격한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에리코는 당혹스러웠다. 도시 빈민층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고,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국제 사회의 원조는 그들의 손에 제대로 다다르지 못했다. 에리코는 방글라데시의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카의 거리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너털너털해 보이지만 독특한 감촉이 매력적이었는데 '주트'라는 천연 섬유로 만든 가방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원조나 기부의 형태를 벗어나 지속적인 개발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였다. 그리고 2006년 드디어 사회적기업 마더하우스(Motherhouse)를 설립하였다.



2006년 설립된 마더하우스는 개발도상국에서 가방과 지갑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선진국에 판매하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에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목표 아래 독특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마더하우스는 선진국 패션 브랜드의 하청 작업이 아닌 자체 브랜드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아 개발도상국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견인하고 있다. 대표 상품인 주트 가방에 사용되는 소재인 ‘주트’는 방글라데시의 천연 섬유로, 광합성 과정에서 목화보다 5~6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폐기 시 완벽하게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다.

마더하우스는 가방 외에도 주트 지갑, 필통, 북커버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네팔에서 마이티가(Maitighar)라는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여 현지의 방직 소재로 가방과 머플러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마더하우스는 ‘좋은 환경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 아래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좋은 노동 환경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현지 직원에게 평균 이상의 높은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금, 의료보험, 건강관리, 직원 대상 대출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적합한 농업으로  
영세 농민에게 희망을  
허니케어 아프리카



✉ [info@honeycareafrika.com](mailto:info@honeycareafrika.com)  
🌐 <http://www.honeycareafrika.com>

조엘 아카키와 그의 아내, 그리고 네 명의 자녀는 케냐 서부에 살고 있다. 장애가 있는 조엘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옷 만드는 일을 하는 아내의 수입과 작은 밭에서 나는 수입으로는 아이들 학비를 대기도 빠듯하다. 이는 조엘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케냐의 영세 농민들 대다수가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 농지는 작은 데다 자본을 구할 길이 없고 안정적인 판로도 없는 현실이 이들을 빈곤선 아래의 생활에 묶어 두고 있는 것이다.

허니케어 아프리카(Honey Care Africa)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영세 농가의 소득 창출 방편으로 벌꿀에 주목했다. 케냐는 국토의 80 퍼센트 정도가 양봉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적절한 기술만 주어진다면 큰 자본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영세 농민들이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장비를 공급해 주는 한편, 생산된 벌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마을 단위의 지속 가능한 양봉업을 촉진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2000년 케냐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케냐를 시작으로 탄자니아, 우간다 정부는 여러 지역 NGO 및 국제개발기구와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양봉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소액신용대출제도를 통한 재정 지원과 양봉 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즉석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농가로부터 벌꿀을 사들여 가공한 후 상점에 판매한다. 허니케어 아프리카의 벌꿀 상품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상당하다. 이 지역에서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고품질 벌꿀의 최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밀랍 수출량도 최대치를 자랑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현장 교육과 벌꿀 생산자들의 판매처 견학과 같은 교육 및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일례로 농가에 랑그스트로스 식 벌통을 보급하여 나무에 높이 매다는 기존의 재래식 벌통을 대체했는데, 그 결과 생산 효율은 세 배가량 높아졌으며 여성도 쉽게 양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현재 1만여 명세 농가가 매년 180~250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기존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많은 농가가 빈곤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설립자인 파로크 지와와 허니케어 아프리카는 많은 상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아프리카의 최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태양열 조리기로 연기 없는 마을 가디아 솔라



✉ badal@gadhia-solar.com  
🏠 <http://gadhia-solar.com>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자리한 티루말라 사원. 매일같이 인도 전역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이 참배를 위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는 남다른 시설이 있다. 바로 세계 최대의 태양열 솥이다. 직경 1.7미터짜리 태양 집열 접시판 106개로 구성된 이 사원의 태양열 조리기는 오직 태양열만을 연료 삼아 매일 5만 명분의 식사를 조리한다.

이 태양열 솥을 개발한 곳은 가디아 솔라 에너지 시스템(Gadhia Solar Energy Systems)으로 태양열 조리기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이다. 티루말라 사원 외에도 가디아 솔라는 1천 명분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태양열 조리기를 인도 전역에 10여 개나 설비했다. 대형 태양열 조리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 태양열 조리기도 보급하여 인도에서만 21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가디아 솔라의 창업자는 디팍 가디아와 시린 가디아 부부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 이로운 기술을 고민하던 중 인도 가정의 조리기구가 마땅치 않아 생기는 문제들을 목격하고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태양열 조리기 덕에 인도에는 현재 ‘연기 없는 마을’이 늘어 가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가디아 솔라는 태양열 조리기를 비롯해 혁신적인 태양열 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인도의 사회적기업이다. 가디아 솔라는 독일의 태양열 집열판 발명가인 디터 자이페르트와 볼프강 쉘러의 도움으로 태양열 집열판 기술을 인도에 소개해 20여 년간 해당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디아 솔라가 개발한 태양열 조리기는 인도에만 이미 수십만 대가 보급됐으며, 인도 내 태양열 조리기 시장의 9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가디아 솔라는 학교나 기관의 급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규모 태양열 증기 조리기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 태양열 조리기도 활발하게 보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 정부가 태양열 조리기 설치비의 절반을 보조해 주어 태양열 조리기의 대중화를 돕고 있다.

태양열 조리기는 환경뿐 아니라 여성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여성이 빨감 연기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빨감을 구하는 데 쓰던 시간을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사용하면서 가계 수입도 늘어났다. 또 태양열로 물을 끓여 마시으로써 마을 질병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게 되었다.

현재 가디아 솔라는 다양한 태양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순수익 전액을 ICNEER(네트워킹, 환경보전, 교육, 재통합을 위한 국제 센터)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 일대일 소비와 기부로 희망을 만드는 신발

### 탐스슈즈



✉ info@toms.com

🏠 <http://www.toms.com>

2010년 4월 8일, 세계 1600여 곳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신발 없이 맨 발로 하루를 보내는 행사에 참여했다. 신발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매년 이 캠페인을 벌이는 곳은 놀랍게도 신발 회사 탐스슈즈(TOMS Shoes)다. 회사명 탐스슈즈는 '내일을 위한 신발(Shoes for Tomorrow)'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 없이 지내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탐스슈즈의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2006년 여름 아르헨티나 여행 중에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신발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마이코스키는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살 때마다 개발도상국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방식을 생각해 냈다. 이러한 일대일 기부 공식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탐스슈즈는 아르헨티나 전통 신발 알파르가타에서 디자인을 차용해 신발을 만들었으며, 사업의 지속을 위해 품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탐스슈즈는 맨발로 생활하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발을 기부하는 미국의 신발 브랜드다. 2006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세운 탐스슈즈는 신발 한 켤레를 판매할 때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탐스슈즈는 창업 첫해에 1만 켤레의 신발을 판매하여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1만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총 판매량과 기부가 100만 켤레를 넘어섰다.

탐스슈즈는 개발도상국의 시민단체를 통해 기부 물량의 90퍼센트를 나눠 준다. 그리고 나머지 10퍼센트의 물량은 탐스슈즈 직원들이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슈드롭(Shoe Drop)'이라는 신발 기부 행사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나눠 준다. 현재 탐스슈즈는 아르헨티나, 페루,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남아공, 몽골, 캄보디아 등 세계 23개국 아이들에게 신발을 전해 주고 있다.

탐스슈즈의 장기적인 목표는 신발을 기부받는 나라에서 신발 생산도 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운송 거리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유통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탐스슈즈가 아르헨티나와 중국에 이어 최근 에티오피아에 신발 공장을 지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탐스슈즈는 현재 3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큰 지역이다.

## 전력망에서 소외된 시골에 전기를 공급하다

### STA



☎ 51-3331-8081

✉ fabrosa@terra.com.br

1983년, 대학에서 농학 공부를 마친 스물둘의 파비우 호사는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리오그란데두술 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갔다. 그곳에서 호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전기였다. 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엔니오 아마라우 교수의 도움으로 획기적인 비용 절감 방법을 찾아냈다. 기존의 세 가닥 구리선 대신 값싼 구리선 하나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이다.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고 주민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다. 전기 펌프를 이용한 관개시설 덕분에 수확량이 늘어 농가 소득도 증가했다.

전기 보급의 중요성을 확신한 호사는 브라질 농촌 전역으로 이 일을 확대하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브라질 정부도 이에 호의적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에 전기 분야를 민영화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민간업체는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랜 고민 끝에 호사는 태양열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았고, 이제 브라질 곳곳의 시골 마을은 전깃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0억 명가량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각국 정부도, 전력업체도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1983년부터 전력망에서 소외된 브라질 농촌 지역 전기 공급에 힘써 온 사회적기업가 파비우 호사는 이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호사는 막대한 설치비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 태양열 에너지를 대체 전력원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호사는 STA와 IDEEAS를 설립했다.

STA(농업전기기술시스템)는 호사가 199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농가에 태양열판 등 태양열 발전 설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무한정 공급되는 친환경 저비용 에너지이지만 초기 설치비가 적지 않아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조사 결과 70퍼센트에 달하는 주민이 유료로 태양열 발전 설비를 임대해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IDEEAS(대체에너지 개발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는 보다 가난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IDEEAS는 STA와 마찬가지로 태양열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이와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 베어풋 칼리지



✉ barefootcollege@gmail.com  
🏠 <http://www.barefootcollege.org>

아침 해가 떠오른 뜰에서 일곱 명의 케냐 여인이 민요를 합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콩고 여인 다섯이 건너편 건물을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케냐도, 콩고도 아닌 인도 라자스탄 주의 외딴 마을. 아프리카 여인들이 인도의 이 작은 마을에는 대체 무슨 일로 왔을까?

산짓 벙커 로이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쥐여 주거나 임시변통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베어풋 칼리지를 세워 지역 사람들이 직접 자기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했다. 2008년부터는 인도 외무부와 함께 빈곤국 여성들을 초대해 태양열 에너지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전기가 닿지 않는 곳에 사는 그들에게 기름과 뿔감 대신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잠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총 28개국에서 150명이 찾아와 태양열 전등, 태양열 조리기 등의 제조 기술을 배워 갔다.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여성들은 베어풋 칼리지에서 배운 기술로 각자의 마을을 개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더 멀리 전파하고 있다.



베어풋 칼리지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과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1972년 인도 라지스탄 주 킬로니아에 설립되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자립적인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베어풋 칼리지의 목표다.

이를 위해 베어풋 칼리지는 글을 읽지 못하는 농부와 여성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베어풋 칼리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여 지역 개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했다. 베어풋 칼리지의 사업은 태양열 에너지, 식수, 교육, 보건, 수공예,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데 각 분야마다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맨발의 전문가'를 길러 내고 있다. 그간 베어풋 칼리지는 태양열 기술자, 건축가, 교사, 의사 등 1만 5천 명의 전문가를 배출했고, 현재는 태양열 에너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각국에서 찾아온 연수생들도 함께 교육하고 있다.

베어풋 칼리지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100퍼센트 태양열 전력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이곳의 태양열 에너지 기술은 인도 16개 주와 세계 17개국의 751개 마을에 전파되었다. 또 2009년까지 211명의 여성을 포함해 총 461명의 태양열 에너지 기술자를 배출했다.

현재 베어풋 칼리지 졸업생들은 자신의 지역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 그러한 이념과 교육을 인도 전역에 확산하고 있다. SAMPDA라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들 20여 개 기관은 인도 14개 주에 분포하고 있다.





## 2장

#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회적기업 \_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전통을 세우는  
목공 기술인  
화천한옥학교



☎ 033-442-3366

🌐 <http://www.hanokschool.co.kr>

“뚝뚝뚝...” 곳곳에서 맑은 망치질 소리가 들린다. 30여 명이 안전모를 쓰고 나무를 운반하거나 지붕 위에 올라가 망치질, 톱질을 한다. 이곳은 화천한옥학교의 실습 현장.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인부가 아니라 이 학교의 학생들이다. 조용하던 화천 산골은 한옥학교가 설립된 뒤로 1년 내내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수강생 한 기수가 한 채씩 짓다 보니 고풍스러운 한옥도 어느새 25채나 생겨났다.

화천한옥학교는 목공 기술을 배워 취업하거나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찾는다. 6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박수평 씨(가명)는 2005년 화천한옥학교를 5기로 졸업했다. “귀촌을 고민하다가 이 학교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 손으로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동문 8명과 한옥건설회사를 창업해 현재 화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어느덧 화천한옥학교는 조용한 산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됐다. 화천한옥학교에서는 가족이나 소모임 단위로 1박 2일 동안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화천한옥학교는 한식 목공 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2004년 화천 군수가 설립한 '전통 황톳집 전수학교'에서 비롯했다. 도시를 떠나온 귀농·귀촌인을 화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08년 화천한옥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다.

만 60세 이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기초 과정이 6개월로 입학금 60만 원과 6개월 식비 9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생교육 주말반'은 17주 270시간으로 입학금만 내면 된다. 교육에 필요한 전통 공구를 학교에서 지원하기에 추가 교육비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수업은 실기 위주이며 간단한 이론 수업도 병행한다. 화천 내에서도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건축물을 지으며 실습한다.

화천한옥학교는 한옥 건축 기술을 보존하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지역의 버려진 농가를 리모델링하거나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지역 경관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최대 경쟁력이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최신 건축 기법이나 자재를 결합해 새로운 시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왕겨 단열 패널 및 이를 이용한 황토주택 건축공법, 한옥의 벽체 구조 및 그 시공법, 볏짚을 이용한 건축용 패널과 그 제조법 등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1기를 시작으로 매학기 30명 정도가 입학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27기 32명이 입학했다.

# 지역 주민의 삶에 기반한 여행 공정여행 풍덩



☎ 063-433-3365

🌐 <http://www.poongdoong.net>

“지척에서 바라보는 마이산을 30년 만에 처음 와 보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2010년 10월 어느 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단풍이 깊어 가는 명산을 눈앞에 두고도 오르지 못한 할머니의 아쉬움은 그렇게 30년 만에 해소됐다. 계단이 많아 일반인도 오르기 힘든 마이산이기에, 휠체어로 느릿느릿 오르다 산 중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밝았다.

공정여행 풍덩이 마련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할머니는 실로 오랜만에 바깥나들이를 했다. 할머니를 포함해 마이산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50명. 이 중 휠체어를 탄 사람이 여섯 명이었고 대부분 머리가 흰 어르신이었다. 공정여행 풍덩 회원 14명과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원 4명이 봉사자로 참가해 장애인 32명과 함께 등반했다.

어르신들은 만나질 산행을 마치고 진안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동향면으로 이동해 황토 염색을 체험할 때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이날의 행사는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마을에서의 식사로 마무리되었다.



공정여행 풍당은 2007년 지역 주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진안 문화의 집'에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을 위해 '향토해설사회'를 꾸렸고 여기서 얻은 배움을 실천에 옮길 방법을 찾던 중 지역대안여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6개월에 걸친 대안 여행 전문가 과정이 '농촌 창업을 위한 평생학습경제공동체 과정-어른들의 공부방'에 마련됐고, 15명의 생태 여행 전문 해설자들이 모여 '공정여행 풍당'을 열었다.

풍당은 진안군의 먹거리와 숙박, 향토역사자원, 체험시설,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었다. 숨은 자원들을 발굴해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대안 여행이란 CBT(Community Based Tourism), 즉 지역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여행이다. 다양한 문화, 향토 자원을 발굴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여행 수익이 직접 방문객을 맞는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풍당의 사업 목표는 '4F'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와 함께하는 여행(Foot),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 문화 상품, 공예품이 있는 여행(Festival), 마을 숙소와 그곳에서 생산된 음식(로컬 푸드)이 있는 여행(Food), 마을의 농장 체험(Farm)을 말한다.

공정여행 풍당은 2010년에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20~25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 전원 마을 짓는 생태 기업 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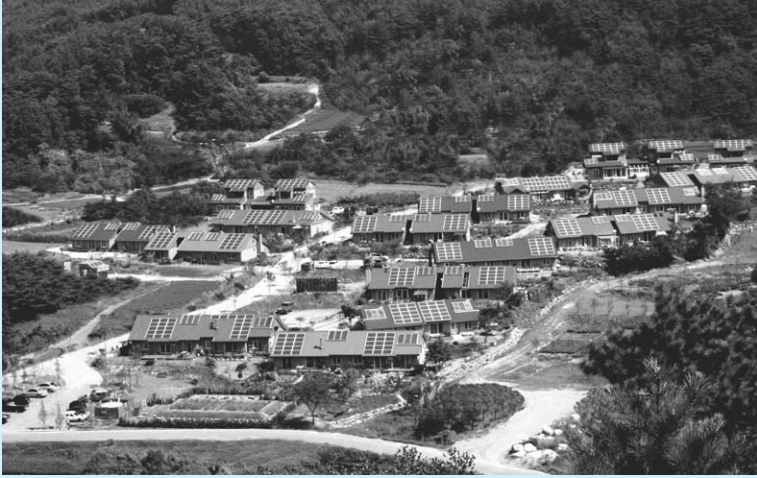


☎ 033-256-0763

🌐 <http://www.e-jang.net>

충남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의 산너울 마을은 서천군이 '이장' 과 함께 조성한 생태 전원 마을이다. 56.07m<sup>2</sup>(18평) 주택이 건축비와 땅값을 포함해 1억 1250만 원, 가장 큰 99.8m<sup>2</sup>(32평)도 1억 5610만 원이다. 흙벽돌과 나무로 지은 친환경 주택치고 분양가가 저렴할 뿐 아니라, 여기에는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660m<sup>2</sup>의 이용 권리도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 살던 박지영 씨(가명) 가족도 2008년 산너울 마을로 이사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 생활,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에 밀어 넣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그 당시에는 한국을 떠나자고 매일같이 남편을 조를 정도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설득해 이민 대신 '귀촌'을 택했다. 이민보다는 시골 생활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이웃 관계가 돈독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마을로 가고 싶었던 박 씨 부부는 문경, 강화도, 실상사 등 여러 곳을 둘러봤다. 그리고 드디어 산너울 마을을 만나게 되었다. 박 씨 부부는 이장이 생태 전원 마을을 짓는 모습을 3년 가까이 지켜보다가 이사를 결심했으며 마침내 집을 계약했다.



이장은 생태 마을을 건립하고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 교육, 컨설팅을 하는 '생태 기업'이다. 현재 34명의 직원이 이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0년 매출은 40억 원에 이른다.

이장이 첫 번째로 지은 생태 마을은 충남 서천군의 산너울 마을이다. 2007년 11월부터 1년 반 공사 끝에 2009년 3월 완공되어 총 34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마당에는 태양광 가로등을 세우고 집집마다 빗물 집수 필터와 태양광 발전기, 중수도를 이용하는 변기를 설치했다.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공동 텃밭과 문화회관 등도 마련했다. 이곳의 주택은 개인이 자의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독특하다.

그뿐 아니라 이장은 마을 조성 계획에 입주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산너울 마을은 40여 회의 '달모임(월 1회 입주자 정기 모임)'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 입주자들의 합의로 주택 배치도를 완성했고 입주 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공동 축제 등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생태 마을은 서산과 하동에도 조성했으며, 추가로 서천, 서산, 하동, 춘천 등에서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장은 2011년부터 '한옥애'라는 한옥 건설업체와 함께 '지란지조'이라는 한옥 생태 주거 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주거 형태)을 지향하는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다. 강화, 완주, 광양에서 공사를 시작했으며 곧 귀촌인을 위한 생활형 생태 한옥 단지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위해 부안시민발전소



☎ 063-582-3532

🌐 <http://buanpower.tistory.com>

전북 부안군 등용 마을의 햇빛발전소는 총 41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 중 3kW는 자가 소비하고, 38kW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2005년 이래 부안시민발전소는 설치 당시의 태양광 전력 요금 단가에 따라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부안 등용 마을 주민을 포함한 출자자들은 2005년에 햇빛발전소 1, 2, 3호기를 건립한 이후 현재 6호기까지 만들었다. 생명평화 마중물 교육관 건물 옥상에 180cm×90cm 크기의 태양광 전지판 150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낮 동안 햇빛을 받아 매월 약 3500kW의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자전거 발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안시민발전소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난다. 즉 300~400평의 교육관, 가정집 등 4채의 건물에 사시사철 섭씨 14~15도가 유지되는 땅속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페달을 1시간 정도 밟으면 선풍기 한 대를 4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와 나무를 깎아 날개를 만들고 코일과 자석을 감아 만든 소형 풍력발전기는 이제 부안 등용 마을 에너지 자립 운동의 상징물이 됐다.



인구 6만여 명이 사는 작은 고장 전북 부안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도 유명한데 2003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으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통증을 겪으며 주민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종자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출자해 2005년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한 시민발전소를 건립했다.

2005년 부안시민발전소를 중심으로 등용 마을과 원불교 부안교당, 천주교 부안성당에 ‘햇빛발전소’ 1, 2, 3호기를 세웠다. 용량은 각각 3kW로, 연간 3500~3700kWh를 생산한다. 1~3호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착한 전기’를 생산해 당당하게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업자가 된 것이다. 이후 햇빛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2010년 현재 발전량은 총 41kW로 등용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약 60퍼센트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부안시민발전소는 2005년 에너지 자립 마을로 등용리를 선정했다. 등용 마을은 2015년까지 마을 에너지 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줄이고 총 사용 에너지의 5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데다 사용 중인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돼 있다. …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 가능 에너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천도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안덕환경사랑회



☎ 064-760-4314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사는 강문수 씨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껏 농사만 지은 평범한 아저씨다. 그러나 마을 하천을 살리려던 작은 노력이 그를 환경운동가의 길로 안내했다. 그가 사는 마을의 창고천은 하수 슬러지가 약 30cm나 쌓여서 막대기로 휘저어도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다. 악취가 진동했고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창고천변을 피해 멀찌감치 돌아갔다. 그는 그런 창고천을 보고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03년 4월 주민들과 의기투합해 '안덕환경사랑회'를 창립하고, 썩뜨물을 수거해 발효액을 만들어 창고천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방류 4개월째 되는 여름 어느 날 퇴적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것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하수 슬러지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일종의 '명현' 현상이었다. 그리고 6년 뒤 2009년 여름에는 1급수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뿐만 아니라 붕어와 잉어 등을 창고천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안덕환경사랑회는 현재 양성관 씨가 회장을 맡아 환경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도 눈을 돌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안덕환경사랑회는 제주 지역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역 하천인 창고천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제주도 안덕면 주민 127명이 참여하고 있다.

안덕환경사랑회는 효모, 유산균과 같은 유용미생물(EM)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음식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주민자치대회에서 받은 상금 4500만 원과 행정지원금 4천만 원, 주민들이 모은 1950만 원으로 초기 기금을 마련했다. 2007년 11월 완공된 퇴비 제조 사업장은 작업장과 체험장, 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식물 교반기, 분쇄기, 발효액 제조통, 유용미생물 발효액 제조 용기, 남은 음식물 수거 용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만든 퇴비는 지역 농민과 안덕면이 운영하는 체험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104톤의 음식물을 수거해 211톤의 퇴비를 생산했고 이를 농가 25곳에 보급했다. 유기비료 시세가 20kg당 4천~6천 원이니 환경오염 예방까지 포함하면 적잖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서귀포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었으며 안덕환경사랑회는 정식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주민 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방과 후에 배추를  
키우는 아이들  
철딱서니학교



☎ 033-672-7479

🏠 <http://www.ddorang.net>

코끝이 시린 2010년 11월의 아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철딱서니학교'는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김장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졸린 눈을 비빌 법도 한데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한자리에 모였다. 800포기나 되는 배추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험거운 고무장갑을 연신 추켜올리며 배추를 씻고 무를 썰었다.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해 일손을 거들었다.

김장용 배추와 무는 지난 8월부터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 시간을 이용해 직접 재배한 것이다. 배추와 무 손질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매운 양념에 간혹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33명의 아이들은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 각종 재료를 열심히 버무려 김치소를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모든 것이 서툴지만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 이웃들이 넉넉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치는 박스에 담겨져 독거노인 20가구와 소년소녀가장 10가구에 전달됐다.

김현덕 양양산촌유학센터장은 “학생들이 먹을거리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네팔 우물 파기 기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딱서니학교는 어린이문화단체 '도랑'이 세운 방과 후 학교 형식의 농어촌유학센터다. 2006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1학교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 이름으로 바꿨고, 2009년 강원도 양양 공수전리로 위치도 옮겼다. 양양으로 산촌 유학을 온 도시 학생들은 읍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철딱서니학교에 모여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설거지, 청소, 공부 등을 스스로 해결한다. 경쟁에 시달리는 도시 아이들과 교육문제로 귀촌을 망설이는 도시인들을 위해 1년간 아이들이 철딱서니학교에 머물며 유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철딱서니학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위치에 정착했다. 철딱서니학교가 들어 서면서 65가구, 120명이 살던 조용한 마을은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이 마을을 돌아 다니며 생태 체험을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 잘 사용하지 않던 마을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하루는 아침 7시, 명상과 요가로 시작된다. 아침식사 후 인근 양양중학교, 상평초등학교 등으로 등교했다가 방과 후에 철딱서니학교에 와서 계절에 따라 계곡 탐사, 트래킹, 유적지 견학, 지역 축제 참가 등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하고 숙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

현재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 정규직 7명과 임시직 1명이 학교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의 도시 지역에서 33명의 아이들이 유학 중이다.

# 도시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상생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041-952-2116

🏠 <http://cafe.daum.net/scnet>

인천에 거주하는 송백호 씨(가명)는 서천군으로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주지에 머물면서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빈집을 수리 중이다. 집수리가 끝나면 송 씨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 재배 기술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송 씨 부부의 귀농 준비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부인은 “남편이 귀농에 대한 환상만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충돌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시골 생활의 어려움을 알기에 남편의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던 것이다. 하지만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고 귀농 투어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교류하던 서천 귀농·귀촌인들이 “후배 귀농인과 우리 지역을 위해 뭔가 해 보자.”라며 2009년 2월 협의회를 결성한 것이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시작이었다. 이어 서천군의 지원으로 옛 성암 분교를 단장해 지금의 귀농지원센터를 열고 1박 2일짜리 귀농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천 지역 정보와 귀농·귀촌에 임하는 마음이 짙, 귀농지 물색 시 알아야 할 상식 교육을 특화했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2006년 이 지역 귀농인 중심의 친목 단체로 출발해 예비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정주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교육을 실시해 서천군의 도시민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천 지역의 귀농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정식으로 서천군귀농인협의회를 창립하고, 서천 내에 권역별로 귀농사랑방을 만들어 귀농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같은 해 서천군귀농지원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10년 1월 충청남도예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귀농인의 집 3개소를 개소하고, 이와 연계해 어스백하우스(Earthbag House) 착공, 조경수작목반, 자연농업연구회, 목공동아리 등 귀촌·귀농인 중심의 작목반과 친목 동아리를 조직했다. 2010년부터는 서천 재래시장, 지역사회 봉사 등 지역 융화와 수익 활동을 시작하면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2010년부터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카페를 통해 재배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자체 제작한 소포물 '자연에서 찾은 행복(<http://screfarm.com>)'을 열고 친환경 농산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재배 농지를 확보하여 귀촌·귀농자들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퇴비를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농기계 공동 사용 및 교육, 회원 상호 품앗이 활동, 지역 일자리 제공, 빈집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순환 영농, 유기농 채소  
영농조합법인 새벽



☎ 063-632-4743

🌐 <http://www.nw4u.kr>

“택배 왔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새벽’에서 보낸 유기농 쌈 채소가 도착했다. 상자를 여니 상추, 고추, 양파, 겨자채, 치커리 등이 말끔하게 담겨 있다.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씻어 밥상에 올려도 안심이다.

3개월 전 이정연(가명) 씨는 ‘새벽’의 정기회원이 됐다. 1kg 기준으로 5천 원, 여기에 택배비 2500원을 더하면 7500원. 집 근처 마트에서는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유기농 채소를 한 달에 두 번 받아 볼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다.

같은 시각, 새벽의 일꾼들은 전남 남원시 수지면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사십 대에서 육십 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일꾼들이다. 그중 상당수는 여성으로 음식점 종업원, 공장 생산직, 전업 주부까지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한 직원이 “땅을 밟으면서 일하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제철 유기농 채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새벽은 2000년 '새벽채소공동체'로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에는 유기농 재배 인증을 받은 업체류를 대형 매장에 납품하였다. 2002년에는 공동 주택이나 단체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수거해 돼지를 사육하고 퇴비를 만들어 영농 사업에 활용했다. 2005년 7월 새벽은 유기농 만나 식당 사업도 시작했다. 점차 사업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2003년 '흙살림 새벽공동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했고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해 지금의 '새벽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새벽의 핵심은 순환 영농이다. 2002년부터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돼지 분뇨 등으로 퇴비를 만들어 쓰고 있다. 남원 시내 아파트 두 곳과 병원 한 곳을 돌며 수거한 하루 2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새벽에서 기르는 토종 흑돼지를 먹일 사료를 만든다. 그리고 돼지 배설물에 짚과 왕겨를 섞어 자연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이용해 유기농 채소를 기른다. 이 채소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인증)을 받았다.

현재 새벽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하는 채소 품목은 60가지가 넘는다. 남원 일대 약 5만㎡ 대지에 40여 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기르는데,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탓에 여름이면 진딧물을 퇴치하기 위해 고생이 많지만 순환 영농으로 기른 채소는 빛깔이 좋고 잘 시들지 않는 강점이 있다. 새벽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전북광역 자활센터와의 협력 아래 기관 및 단체로 유기농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 새싹과 육묘를 키우며

### 청람



☎ 061-352-6381

2009년 6월에 문을 연 '청람'의 육묘장은 2310m<sup>2</sup> 규모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비닐하우스로 시작해 2011년에는 198m<sup>2</sup>를 더 늘려 새싹 재배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육묘장에서는 고추, 벼, 배추, 양파 등의 육묘를 생산하고 있다. 또 새싹 재배시설에서는 무농약 친환경 인증 새싹 외에 무순, 어린잎 채소 등을 키우고 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새싹 등의 식재료는 호텔과 식당 등으로 납품하고 농산물 묘종은 주문을 받아 판매한다.

현재 육묘장에서 일하는 10명의 직원은 청람이 직원 공고를 내서 모집한 인원이다. 대부분 영광 사람이고 멀리는 광주에서 온 이도 있다. 직원들은 농가에서 묘종 신청을 받아서 육묘장에서 발아시켜 원하는 날짜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육묘는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 농사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육묘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공기 좋은 농촌으로 들어와 새 일자리를 얻은 데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청람은 향후 농산물 세척장과 건조장, 포장장을 조성하고 농산물 직거래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청람은 2001년 11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주민 60명이 자원봉사를 위해 모인 것이 그 연원으로, 현재는 전남의 대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직원 70명이 일하고 있는 청람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 원불교 원광의 지역아동센터와 영광군 '내 빛·꿈이 있는 땅', '멋쟁이', '기쁜 우리', '작은 숲', '아름이', '수애원', '느티나무' 등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지도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국립 영광노인병원, 영광종합병원에는 유료 간병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18명의 환경지킴이들은 공공시설 및 기관시설의 청소나 폐자원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 농수산 지킴이 10명은 환경친화적 농산물 육묘 및 무농약 친환경 인증 새싹과 채소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2009년에 시작된 이 육묘장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청람 자체 예산 6억 원으로 안착시켜 나가고 있어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청람은 초기에 전문 간병 서비스나 가사 도우미, 청소 용역 사업에 주력하여 2005년 민간자원 동원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됐고, 2006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 연계형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같은 해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육묘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7년에 전남 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 지원 없이도 확고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람은 앞으로도 적잖은 모색과 도전을 감행할 전망이다.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 053-956-5001

🌐 <http://www.withse.net>

2010년에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발굴한 새내기 사회적기업은 모두 27곳(대구 15개, 경북 12개)이고 이 중 15곳이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대구 남구 시니어클럽 행복 한 노인 일터 사업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74건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중고 가전제품을 마을 장터에서 값싸게 판매하기도 했다. 또 노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경로 급식을 후원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녹색소비자연대 '에코뮤직페밀리사업단'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와 만나 사회적기업 간판을 달았다.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에코뮤직페밀리사업단은 장기 실업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성악 등 문화 관련 전공자들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전통 한지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지나라 공예문화협회'도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곳이다.

이처럼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다방면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의 첫 시작을 밝혀 주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1995년 대구와 경북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민간 연구소인 '대구사회연구소'의 부설 기관이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09년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았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돕고,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나 업체 가운데서 유망한 곳을 발굴하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 사회적기업가에게 회계 및 경영 컨설팅, 마케팅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아가 농어촌 지역 사업의 계절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경제성을 갖춘 수익 모델의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우수 사례 홍보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 대구사회연구소는 여러 유형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지원센터 등을 별도로 만들어 지역 내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잠재적 사회적기업가인 청년 계층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소셜벤처 대회도 열고 있다.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은 2008년 12개에서 2011년 3월 현재 47개로 늘었다.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 033-655-1124

🌐 <http://www.maeul.or.kr>

2011년 1월 10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사는 열한 분의 어르신이 '인터넷 수다'를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이용 방법이 이날의 학습 주제였다.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나온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트위터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 주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여주 서화 마을 주민들이 도시민과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는 영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거참, 신기하네. 뭐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첫 시간이니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나하나 풀어 가면 되겠지."

구정리 마을은 마을회관 디지털 공부방의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해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는 마을 전체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소셜네트워크 교육은 구정리 주민 대표가 정보화 교육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이처럼 고령자가 많은 농촌 마을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찾아가 돕는 일을 한다.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강릉에 산재해 있는 마을들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립되었으며 자문, 지원, 컨설팅 등 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 행정, 학계, 관련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지원단’을 처음 출범 시키면서 활동에 들어갔고, 2008년 3월에 현재의 센터를 설립하고 강릉시로부터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위탁받았다. 현재 상근 직원 2명에 소장, 사무국장 및 15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활동 공간이면서 마을 자료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지도자,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이곳에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물론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더 좋은 마을을 만들고 유지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무실 밖 활동은 더욱 활발하다.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시청의 공간을 이용해 교육 컨설팅을 한다. 공무원이나 주민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사업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보통의 컨설팅 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면 현장을 떠나지만 강릉시 만들기 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현장에 계속 남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자문 및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 063-714-4600-1

🌐 <http://www.wanjuro.org>

지방 생존경쟁 시대를 맞아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경쟁력으로 삼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다. 완주군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세우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9년에 지역 주민 56명이 공동 출자해 완주군 구이면 안덕 마을에 조성한 '안덕과워빌리지'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다. 주민들이 직접 쌓은 돌담과 재활용 목재로 지은 한옥에 '건강과 치유'를 주제로 한증막, 한옥, 황토방, 농가 레스토랑을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했다. 죽염을 사용해 만든 것갈로 김치를 담그는 죽염김치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관광 사업으로 8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뿐 아니라 지역순환센터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2009년부터 신금리에서 지역자활센터 내 12명의 상근자가 '웰빙 황토벽돌'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는 2010년 6월 완주군에서 설립한 군 단위 중간 지원 조직이다. 비영리 단체(NPO) 간 교류를 돕고 NPO와 주민, 기업,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 '마을 회사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 푸드', '도농순환', '공감문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정한 다음, 폐교를 개조해 국내 최초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열고 70여 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지자체 참여와 행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완주군에 있는 마을 각각의 특색 있는 자원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창업 스쿨, 창업 동아리 등을 만들어 주민들 스스로 사업에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며, 이후 시범 사업, 테스트 마케팅 등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후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지원하고 마을 총가구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회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을 마을의 핵심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고산 창포 마을, 운주 완창 마을, 경천 오복 마을, 이서 물고기 마을 등 다양한 체험 마을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마을 공동체 회사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회사 순수익의 20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서비스에 제공할 것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다  
진안군뿌리협회



☎ 063-433-0245

🌐 <http://www.refarm1.com>

2010년 여름 전북 진안군뿌리협회는 예비 귀농인을 위한 뿌리농촌학교를 처음으로 열었다. ‘마실 길 걷기’ 행사도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지난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동안 진안 땅을 걸으며 진안 사람들과 마을, 그리고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였다.

100여 개의 마을을 지나고 21개의 언덕을 넘는 165킬로미터의 여정이었다. 완주한 사람 14명, 하루 이상 함께한 사람 99명 등 모두 187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뿌리소통’이라는 시간을 통해 그날 접한 마을에 관해 이야기도 나누고 일일 강사의 강연도 들었다. 첫날에는 뿌리협회 최태영 사무국장이 귀농을 주제로 말씀을 열었다. 진안으로의 귀농을 계획 중인 안지현 씨(가명)는 “귀농에 대한 환상만 있을 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다.”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 국장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농촌 사회에 도움이 될 일을 찾는 것도 좋다.”면서 “여성단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농촌 여성들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28명의 예비 귀농인이 진안군 지역민과 교류했다.



전북 진안군은 귀농·귀촌인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실제로 2007년 농림수산 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2009년까지 3년간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의 수혜를 받았고 2010~2012년 계속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귀농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역민들과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도시민 유치지원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 12월 **진안군뿌리협회가** 결성됐다.

진안군뿌리협회는 결성 이후 귀농인 상담, 일자리 알선, 지역봉사활동 지원, 농촌 정서 복원 활동, 토종 종자 보전 등 농업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뿌리협회는 마을 축제를 후원하고 '귀농인의 집'을 대행 운영한다. 귀농인의 집은 도시민 유치사업의 하나로, 귀농하거나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토지나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 지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살면서 정착을 준비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현재 진안군 내 총 16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 뿌리협회는 2010년 전라북도 '귀촌·귀농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기관'에 선정되어 13명의 귀농인을 채용하여 귀농 초기 부족한 영농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진안군뿌리협회는 현재 2명의 상근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일손이 많이 필요한 축제 때는 필요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한다. 연 6회 귀농인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을 발간하는 직원 3명을 임시직으로 채용했다.

민간 최초의  
친환경 유기농 업체  
흙살림



☎ 043-833-8179

🌐 <http://www.heuk.or.kr>

‘젊어서 농민운동을 하겠다.’ 흙살림 이태근 회장의 신념은 단순했다. 다짐대로 이 회장은 1984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직후 충북 괴산군의 ‘충북농촌개발회’에 등지를 들었다. 그리고 25년 넘게 농촌을 지키면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농촌형 사회적기업 흙살림을 키워 냈다.

당시 이 회장이 생각한 농업의 키워드는 ‘흙 살리기’였다. “유기농의 기본은 흙 살리기입니다. 살아 있는 흙에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유기농이지요.”

1994년 이 회장은 괴산에서 본격적인 유기농장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형 유기농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에 나선 것이다. 오늘날 흙살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유기농 사업의 핵심 분야인 ‘미생물 배양 사업’도 이때 시작됐다. 유기농에 사용하는 미생물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기가 발동했던 까닭이다.

충북 괴산 본사와 오창과학단지에 위치한 흙살림 오창연구센터에는 각종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기와 탱크가 가득하다. 한국형 유기농의 꿈은 오랜 공을 들여 이렇게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휴살림의 전신은 1991년 이태근 회장이 창립한 '과산 미생물연구회'다. 2년 뒤 '휴살림 연구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농민운동 형태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를 느꼈다. 무엇보다 농민들과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개발한 퇴비와 미생물 등의 유기농 자재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 2000년에 휴살림 조직을 톨로 나눴다. '사단법인 휴살림'은 농민운동 사업을 계속하고 '주식회사 휴살림'은 유기농 자재 개발과 판매 사업에 집중했다. 이후 휴살림의 사업은 순풍을 탔다. '교육-컨설팅-인증-자재 생산'을 시스템화하고 2005년부터는 유기농산물 유통 사업을 정상화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전 과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안 농업을 시스템화한 성과로 2008년엔 사단법인 휴살림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0년 농자재 및 농산물 유통 사업 등으로 매출 110억 원을 달성했다. 현재 농촌 주민 20명, 연구 및 전문직 40명이 휴살림에서 일하고 있다. 휴살림은 처음부터 생산 농가에 밀착했다. 이 덕에 유기농 자재를 개발할 때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땅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2010에는 토종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 땅에 맞는 유기농업을 위해 토종 연구에 힘쓰는 한편, 도시 소비자와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연결하는 꾸러미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휴살림은 2002년 1월 친환경농산물전문인증기관 1호로 지정받았으며 2009년까지 1900여 농가를 인증하였다. 현재 미생물 관련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다.

## IT로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한 송천 떡마을



☎ 033-673-7020, 033-673-8977  
🌐 <http://songcheon.invil.org>

강원도 양양군 '송천 떡마을'은 한계령 동쪽 아래에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산간 마을이었다. 경작지가 좁은 탓에 이 지역에서 나는 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떡을 가공해서 내다 팔았다. 그러다 1971년 한계령에 도로가 열리면서 설악산과 동해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떡을 팔기 시작했다. 간밤에 빗은 떡을 광주리에 이고 오색약수터, 낙산사,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행상을 나갔다. 전통 방식으로 빗어 만든 떡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떡을 사러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1990년대 말쯤에는 송천 떡이 제법 유명해졌다. 마을 입구에 '떡마을'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떡을 마을 사업으로 특화했다. 행정자치부 전국 최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광객과의 소통도 늘렸다.

송천 떡마을에 가면 옛 시골 마을의 정취 속에서 디딜방아도 구경하고 그네도 타고 재래식 떡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떡 만들기 체험을 하려면 사전 예약은 필수다. 떡 만드는 데 쓸 쌀을 미리 물에 불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함께 쌀을 씻고 시루에 찐 다음 떡메로 떡을 누르고 치다 보면 시간이 어찌 가는 줄 모를 정도라 한다.



강원도 양양군 송천 떡마을은 먹고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빈한한 산촌 마을이었다. 1970년 중반에 주민들이 떡을 만들어 인근의 설악산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갔지만, 1980년대 후반에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점상 단속이 심해져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1997년 15가구가 각각 100만 원씩 출자해 떡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가공시설로 쓸 집을 지었다. 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가구와 참여하지 않는 가구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회의를 통해 차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일 모든 가구가 참여해 떡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9년 4월 당시 이장이었던 탁상기 씨를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아름 마을 가꾸기’ 사업과 정보화 시범 마을 대상지로 선정됐다. 송천 떡마을 행정과 홍보 관련 업무는 정보화 시범 마을 사업을 계기로 채용된 사무장이 중심이 되어 맡아 하고 있으며, 떡 체험장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전담자를 채용해 관리하고 있다.

떡 체험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으로 송천 떡마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특산물 직거래가 확대되고 인근 마을에도 파급 효과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하여 참여 가구는 사업 초기 29가구에서 현재 38가구로 늘었다.

시골집 어머니가  
보내주는 먹을거리  
황성텃밭공동체



☎ 033-345-5060

🏠 <http://cafe.daum.net/godjs>

서울 양천구에 사는 주부 김미희 씨(가명)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일주일에 한 번 ‘황성텃밭공동체’에서 보내오는 제철 꾸러미 덕분이다. 김 씨는 큰아들의 학급 어머니회 모임에서 제철 꾸러미 얘기를 들었다. 한 달에 10만 원이란 가격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최근 부쩍 오른 채소 값을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었다.

이번 주 제철 꾸러미에는 손두부, 유정란, 고추부각, 손만두, 배추, 시금치, 상추, 옥수수차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여느 때처럼 생산자 농민의 편지도 동봉되어 있다. “추운 날씨에 단단히 옷 여미고 다니십시오.”라는 인사말이 정겹다. 편지에는 제철 꾸러미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농산물을 정성 들여 키우고 가공하는 생산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김 씨는 이번 주 배달 물품 중에서 고추부각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편지에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반찬”이라고 쓰여 있었다. 고추가 한창일 때 수확해 손질하고 튀김옷을 입혀 찌고 말린 다음, 다시 튀겨 양념해 만든 반찬이다.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밥도둑이 따로 없다.



황성텃밭공동체는 황성 농민들의 수익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됐다. 영농조합법인 2개(텃밭, 공동체농업지원센터), 비영리 단체 3개(‘언니네텃밭’ 사업단, 소규모자립공동체지원사업, 황성군농민회)로 이뤄져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영농조합법인 텃밭은 배송 업무, 소모품 조달 등 다른 조직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현재 황성텃밭공동체 윤종상 대표와 지역 농민 2명이 상근하고 있다.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인 공동체농업지원센터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인 ‘어기여차 유정란사업단’에서 출발해 2010년에 법인화했다. 이 센터에 참여하는 농민 9명 중 7명이 60~80세 고령자와 장기실업자다. 현재 계사 3동(825m<sup>2</sup>)에서 닭 1500마리가 하루로 쉬지 않고 매일 유정란 1200여 알을 낳고 있다. 이 외에도 콩나물을 재배하고 밑반찬을 만들면서 제철 꾸러미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수익 구조를 다원화하고 있다. ‘언니네 텃밭’ 제철 꾸러미 사업은 전국여성농민회가 주축이 돼 일켰다. 고객으로부터 회비를 미리 받아 유기농 제철 꾸러미를 보내는 방식으로 정착해 2009년 8월 황성텃밭공동체를 시작으로 이후 전국에 7개 생산자 조직이 생겨났다.

황성텃밭공동체 윤 대표는 “우리는 6차 산업(1×2×3)에 종사하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농사를 짓고(1차 산업), 가공하여(2차 산업), 제철 꾸러미 한 상자를 유통하는(3차 산업) 과정이 황성텃밭공동체에서 모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  
청송시니어클럽



☎ 054-874-5600

🌐 <http://club.cyworld.com/jeun5600>

청송시니어클럽 관장 황진호 씨는 서른세 살이다. 시골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농촌 공동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요즘, 경북 청송에 눌러앉아 시니어클럽을 만든 그의 사연은 무엇일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의반 타의반 청송에 돌아온 황 씨. 농번기 이후 경로당이나 다방에서 무료하게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노인들이 유독 그의 눈에 들어왔다. 대학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학,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황 씨는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시골 마을에 시니어클럽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황 씨는 2008년 9월 청송에 시니어클럽을 조직했다. 그리고 청송 룡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점에 착안해 '내 고향 된장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류 사업을 기획했다. 청정 지역 청송 룡에 할머니들의 손맛이 더해진 청송 장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청송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놀이터'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노인들이 상호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청송시니어클럽은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라는 목표 아래 2008년 9월 설립됐다. 고령자가 많은 경북 청송에서 지역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보급하고 나아가 실버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장을 담그는 '내 고향 된장 공동 작업장' 외에도 '실버 산불 지킴이', '시니어 교통 안전 도우미' 등 다양한 공공 근로 일자리를 마련해 2010년까지 지역 내 850여 명의 고령자가 공공 근로에 참여했다. 공공 근로는 참가자가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제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2009년 3월 시작된 '내 고향 된장 공동 작업장'은 지역 할머니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의 방식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다. 청송에서 나는 콩과 약수를 이용해 재래 기법으로 장을 만들고 있다. 방부제, 색소, 첨가물 등은 전혀 가미하지 않는다. 10명의 고령 근로자들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2010년 현재 월급은 93만 2천 원이며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사업체다. 청송시니어클럽은 '내 고향 된장 공동 작업장'으로 2010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사업에는 청송군, 안동과학대학 식품계열학과, 유통전문화사 (주)세상R&D가 협력하고 있다. 청송군은 행정과 기획을, 안동과학대학은 근로자 교육 및 제품 생산 교육을, 세상R&D는 판촉과 홍보 등 판매 부문을 지원한다. '내 고향 된장 공동 작업장'은 앞으로 매실된장과 사과된장 등의 제품을 개발해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 지역을 이롭게 하는 친환경 농산물 토리식품



☎ 054-541-5388

🏠 <http://www.toryfood.com>

토리식품 대표 김영선 씨는 1995년 당시 신문기자였던 남편 김영태 씨와 결혼한 뒤 경기도 일산에 정착했다.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며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가졌고, 2001년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회사 토리식품을 차렸다. 도토리처럼 작고 알찬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사업 첫해에 '토리 케첩'을 출시하고 이듬해에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초기에는 고양시 외곽에 60평짜리 공장을 임대해 직원 한 명과 꾸려나갔다. 이후 카레, 돈가스 소스, 핫케이크 가루 등 생산 품목이 많아지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다. 공장을 늘려야 했고 그러려면 더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2005년 상주로 일터를 옮겨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했다. 이 무렵 남편도 사업에 합류했다.

토리식품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회사명의 뜻도 '땅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土利)'로 바꿨다. 토리식품 통합브랜드 '아리랑 토리랑'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한 김 씨 부부는 현재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토리식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꿈꾸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회사다. 주요 품목은 케첩, 카레, 돈가스 소스, 호박죽, 옥수수 병조림 등 10여 가지. 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용기까지 친환경 신념을 고수하려 노력한다. 가령 케첩이 대개 튜브형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것과 달리 토리식품 케첩은 유리병에 담겨 판매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도 가축 사료로 버려지는 멸절한 호박을 가공한 호박죽도 선보였다. 2006년 개발 이후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까지 호박죽 누적 생산량이 90톤을 돌파했고 매출은 5억 4천만 원이었다. 토리식품의 전체 매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약 27억 원에 이른다.

토리식품의 친환경 상품은 주로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팔린다. 한국생협연대(아이쿱생협)를 통한 판매가 매출의 35퍼센트를 차지하고 한살림사업단이 30퍼센트 정도이다. 이 밖에 두레생협연합회 등 유기농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토리식품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토리식품은 '지역에 기반한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려 노력한다. 지역민, 그중에서도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공장장(구미 거주)을 제외한 상주 공장 직원 30여 명 모두 지역민이다. 가공량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60~70대 할머니 30여 명을 임시로 고용한다.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 복원에도 참여해 상주 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인형극단 공갈뭇'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갈뭇 문화재단'을 설립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비지로 만든  
친환경 버거  
생명살림 올리



☎ 043-268-3702

🌐 <http://www.alllee.co.kr>

햄버거가 정크푸드로 불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패티 때문이다. 정채불명의 갖가지 고기를 갈아 만든 패티를 빵 사이에 끼우고 자극적인 소스를 뿌린 햄버거와 탄산음료는 건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선택이다. 하지만 '올리버거'는 햄버거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깬다.

'생명살림 올리(All利)'의 이해정 대표는 일찍이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활용할 방법을 생각했다. 비지는 영양이 우수하고 변비와 비만에 좋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비지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비지만으로 패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 결국 성공했다. 새로운 콩 햄버거의 이름은 '올(All)리(利)'로, 모두에게 이로운 먹을거리라는 뜻이다. 이름에 걸맞게 올리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다. 친환경 우리 밀로 만든 빵을 사용하고 방부제나 첨가물은 넣지 않는다. 계란도 유정란만 쓰고 패티는 현미유로 굽는다. 나아가 이러한 재료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조달한다. 수입 과정에서 낭비되는 비용과 에너지를 아껴 '푸드 마일리지'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생명살림 올리**는 2007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올리 버거를 만들기 시작해 2008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올리'의 대표 제품은 올리버거지만 매장에는 공정무역 커피, 비지로 만든 머핀, 친환경 재료로 만든 양갱, 식혜 등도 진열돼 있다.

올리는 '안전한 식품 생산'을 지향한다. 재료에서 유기농, 로컬 푸드, 재활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버려질 뻔한 비지로 패티를 만들고 유기농 재료로 빵과 속을 채운다. 또 최대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

2007년 청주 YWCA에서 6명이 소박하게 시작한 음식물 재사용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철두철미한 사회적 책임 원칙이 있었다. 여성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고 비지는 여성 장애인 연대 '다음 일터'에서 가져왔으며 주로 취약 계층을 고용했다. 현재 올리에는 12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을 각각 다른 매장의 주인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게 올리의 목표다.

수익성 제고는 올리의 고민거리다. 제품 원가가 판매가의 45퍼센트에 달한다. 보통의 식당에서 재료비 비중이 판매가의 30퍼센트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높아진다고 덩달아 판매가를 높이면 대중과 거리를 두는 셈이므로 선불리 그럴 수도 없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리버거는 한 달에 평균 6천~7천 개가량 팔리고 있다. 아직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학교나 단체 주문을 중심으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만큼 바람직한 먹을거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 최고의 관광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 평창그린투어사업단



☎ 033-332-9941

🏠 <http://www.happy700stay.com>

서울에 사는 대학생 윤지영 씨(가명)는 지난 봄 친구와 함께 평창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예전에는 주로 스키를 타기 위해 평창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휴양이 목적이었다. 숙박부터 체험까지, 여행에 필요한 요소는 모두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을 통해 예약할 수 있었다.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예약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했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평창읍 터미널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평창은 전체 면적의 약 65퍼센트가 해발 700m 이상인 고원지대다. 해발 700m 지점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곳으로 인간과 동식물이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봄에 찾은 평창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과 초원 등 휴양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윤 씨는 친구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촬영지로 유명한 미탄면 을치리로 향했다.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 눈처럼 내리던 동막골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 금세 하루가 저물었다. 숙소는 농가 민박이다.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는 강원도의 맛있는 향토 음식으로 저녁상을 봐주셨다.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평창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박 농가 등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만든 협력체다. 현재 78개의 민박 농가와 7개의 레포츠 회사, 12개의 체험 마을, 4개의 관광 농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펜션 때문에 민박 농가의 수입이 줄었다. 2003년 민박 업주들이 농박협의회를 구성하고 위기 타개책을 모색했다. 하지만 외부 예약 대행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높은 홍보비 마련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동력의 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던 중 몇몇 농가가 함께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의 모체인 농박협의회가 윤곽이 잡혔다. 이후 참여 농가들이 낸 회비로 홈페이지 구축, 간판, 브로슈어 제작 등 공동 마케팅 사업과 학습회를 진행했다.

농박협의회는 2005년 정부의 '신활력사업'이 시작되면서 평창그린투어사업단으로 확대됐다. 이때 농촌 체험 마을, 레포츠 업체, 관광 농원 등이 사업단에 합류했다. 2008년 관광농원협의회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사업단의 규모가 커졌다. 2011년 지자체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은 농가 민박을 브랜드화했다. 농가 민박 인증체계를 도입해 품질의 표준화를 이룬 것이다. 회원 농가는 인증 간판을 달고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골다움'을 지키면서도 서비스 품질은 높이는 전략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평창 관광을 홍보하는 '농촌 관광 홍보 시스템 사업'도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마을  
임실 치즈 마을



☎ 063-643-3700  
🌐 <http://cheese.invil.org>

서울 관악구에 사는 손기영 씨(가명)는 일곱 살 난 아들 민수와 함께 당일 여행을 떠났다. 손 씨 부자의 목적지는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에 위치한 임실 치즈 마을. 임실 치즈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11시 30분에 시작하는 체험 패키지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했다. 서울에서 임실까지는 차로 꼬박 3시간 30분.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고 친구들과 놀러 온 이십대 대학생들도 보였다. 첫 체험은 치즈 돈가스 점심. 아이는 돈가스 속에 든 치즈를 짹짹 늘어 가며 먹었다. 그리고 나서 덜덜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모차렐라 치즈 공장으로 이동했다. 경운기를 처음 타 보는 아이는 엉덩이가 들쭉일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치즈 공장에서는 임실 치즈 마을의 유래와 치즈 만드는 법, 치즈의 종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함께 산양과 젖소에게 먹이를 주고 임실 치즈로 직접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 체험을 마치고 나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날 손 씨 부자는 농촌 마을도 체험하고 동물들도 만나고 임실 치즈로 요리도 해 먹으면서 보람 찬 하루를 보냈다.



임실 치즈 마을은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에 있는 화성, 중금, 금당의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주민 총회를 통해 '임실 치즈 마을'로 개칭한 뒤 성공한 농업 공동체로 명성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74가구, 183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지역에는 본래 특별한 소득 작목이 없었다. 1964년에 임실 성당에 부임한 지정 환(벨기에 이름은 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가 가난한 마을에 살길을 찾아주기 위해 유럽에서 산양을 들여오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3년 후인 1967년, 임실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가 탄생했다.

임실 치즈 마을은 농축산이사, 상거래이사, 체험이사 등 6개의 이사회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특산물은 치즈와 요구르트로 목장형 유가공공장인 (영)이플 유가공과 숙성치즈 전문 공방인 '치즈家'에서 만든다. 풍부한 관개용수와 평평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친환경 쌀과 유기농 채소도 생산한다. 무농약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쌀은 도농 직거래를 통해 현미와 백미를 합쳐 연간 72톤가량 팔린다. 이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는 시중 채소보다 50~100퍼센트 높은 값으로 출하된다. 임실 치즈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치즈 만들기, 산양유 비누 만들기, 초지 낙농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 수가 2006년 1만 348명에서 2010년 5만 7270명으로 5배가량 늘었다. 이에 비례해 매출액도 같은 기간 약 2억 3천만 원에서 약 15억 2천만 원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 도농 간 교류를 사업화하다 세심마을



☎ 054-762-6148

🏠 <http://sesim.go2vil.org>

사산오대(四山五臺). 경주의 네 산과 다섯 기암괴석을 일컫는 말이다. 사산(四山)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화개산(동쪽), 자옥산(서쪽), 무학산(남쪽), 도덕산(북쪽)을, 오대(五臺)는 세심대(洗心臺), 관어대(觀漁臺), 탁영대(擲纓臺), 징심대(澄心臺), 영귀대(詠歸臺)를 의미한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세심마을은 이 사산오대의 품에 둘러싸여 있다. '세심'이라는 마을 이름도 오대(五臺) 중 세심대의 명칭에서 비롯됐다. 이곳 세심마을은 여주 이씨의 집성촌으로 이언적의 후손들이 모여 산다. 이언적은 1491년(성종 22년) 경주시 양동마을에서 성균관 유생 이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27세부터 1년간 조한보와 네 차례에 걸쳐 무극태극(無極太極) 논쟁을 벌이며 학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이보다 앞선 24세 때 관직에 나가 여러 요직을 거쳤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실력자였던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끝내 삭탈관직된 뒤 41세에 낙향한 그곳이 바로 오늘의 세심마을이다. 그는 이곳에서 자연과 책을 벗 삼아 살았다.

세심마을에 가면 450년 전 이언적의 숨결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세심마을은 총 65가구, 130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2002년 농촌진흥청에서 '전통 테마 마을'로 선정하면서 도농 교류의 문을 열었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 주민 8가구가 출자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의 지원을 받아 체험관을 건립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힘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2009년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서 노동부의 지원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관광객에게 세심마을의 자랑거리를 선보이면서 지역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키워드는 '전통문화체험'이다. 먼저 모심기, 버섯 종균 넣기 등 계절 특성에 맞는 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게 지기, 떡메 치기, 새끼 꼬기 등 농촌의 일거리를 활용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 명소인 독락당과 옥산서원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었고, 회재 이언적과 그 아들 잠계 이전인을 돌아볼 수 있는 유적과 국보인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있다. 그뿐 아니라 수시로 열리는 마을 특산물 장터에서는 아근, 미나리 등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풍성하고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과 친환경 농산물이 입소문을 타서 2010년 한 해에 세심마을을 찾은 일반 방문객은 10만여 명이고 체험객은 1만여 명이나 된다.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마을의 소득도 크게 늘었다.





## 3장

# 일자리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기업 \_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

## 공예품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콕핏아트



✉ [info@cockpitarts.com](mailto:info@cockpitarts.com)  
🏠 <http://www.cockpitarts.com>

영국의 장신구 디자이너 재클린 켈런은 흑옥을 가공하여 장신구를 제작한다. 켈런의 장신구는 독특한 소재만큼이나 디자인이 독특해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켈런의 작업실은 런던의 홀본 지역에 자리 잡은 콕핏아트(Cockpit Arts) 스튜디오에 있다. 콕핏아트는 디자이너들에게 저렴한 비용에 작업 공간을 임대해 준다. 또 '오픈 스튜디오'라는 정기 행사를 통해 콕핏아트의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는 디자이너들의 공예품을 일반에 전시하고 판매한다.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열리는 이 행사는 매년 2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편 콕핏아트의 일대일 코치 프로그램은 각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뛰어난 공예품을 만들어 내지만 사업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부족해 선뜻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켈런의 장신구는 판매가 급증해 지난 2년간 판매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났다. 그뿐 아니라 뉴욕과 뮌헨 등지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며 국제적인 지명도를 쌓아 가고 있다.



콧핏아트는 공예품 디자이너들의 창작 활동과 사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사회적기업이다. 런던의 닷퍼드와 홀본에 스튜디오를 둔 콧핏아트는 도자기, 보석, 패션, 금속공예, 유리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165명에게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다. 콧핏아트의 스튜디오는 일반 상업 시설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콧핏아트는 입주 디자이너들이 만든 공예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 등을 통해 디자이너들에게 판매 기회를 열어 주고 홍보를 지원해 준다. 일대일 코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각 디자이너들이 사업 방향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도하며 조언해 준다. 또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무 시설을 제공해 주고 낮은 이율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러한 콧핏아트의 지원에 힘입어 입주 디자이너들의 98.7퍼센트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 중 87퍼센트가 창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1986년 젊은 실업자들이 공예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그만 작업장을 마련해 준 데서 시작된 콧핏아트는 현재 재능 있는 영국 공예품 디자이너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했다. 2002년부터 콧핏아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바네사 스완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영국의 아트앤비즈니스 시상식에서 가렛상(Garrett Award)을 받았다.

고용을 위해  
빵을 굽는 제과점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 [info@greystonbakery.com](mailto:info@greystonbakery.com)

🏠 <http://www.greystonbakery.com>

미국 뉴욕 주 남서쪽에 자리한 용커스 시에는 빵을 굽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굽는’ 제과점이 있다. 그곳은 바로 맛 좋은 브라우니와 쿠키를 뉴욕 시내 고급 식당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그레이스톤 베이커리(Greyston Bakery)다.

스물일곱 살의 듀레인은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 열한 살에 아버지와 함께 아이티에서 뉴욕 주로 이민 온 듀레인은 열네 살 때 가출하여 보호소 신세를 지고, 거기서 임신을 하여 학업마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듀레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다행히 그곳에서 브라우니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기르며 학업도 이어 갔다.

현재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듀레인은 준학사 학위 수여를 앞두고 있다. 아픈 또는 숨기고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 아니다. 그녀의 동료 로드니는 한때 마약 판매상이었다. 이처럼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한때 노숙자, 출소자, 약물 중독자였던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용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브라우니와 쿠키 등 디저트 제과를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다. “우리는 브라우니를 굽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브라우니를 굽는다.”라는 모토처럼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고용을 통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차별 없는 고용 정책을 고수하며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는 물론 직업 훈련, 건강관리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패스메이킹(PathMaking)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건강, 육아 등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상담,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자동화 시설을 적극 도입한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개발도상국과 다른 데다 자동화 시설로 대량 생산을 해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브라우니와 쿠키는 그 품질을 인정받아 널리 판매되고 있다. 처음에는 소매 제과점으로 시작했지만 근래에는 고급 도소매 베이커리로 연간 35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는 판매 수익으로 비영리 단체인 그레이스톤 재단을 지원한다. 그레이스톤 재단은 직업 훈련,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시설, 탁아 서비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에이즈 환자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며 연간 2200명의 지역 주민을 돕고 있다.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



☎ 206-768-1990

🌐 <http://www.pioneerhumanservices.org>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Pioneer Huma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출소자들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이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의 사업은 고용을 넘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그 자신이 알코올 중독을 겪었고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변호사 잭 달턴이 세웠다. 잭 달턴은 1963년 출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주거 지원 사업으로 파이오니어 펠로십 하우스를 세운다. 그는 처음부터 출소자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대가 없이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소자 대부분은 입주할 돈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먼저 '일자리'가 필요했다. 사회적기업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매년 발전을 거듭해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 매거진』이 2006년부터 매년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의 국가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고용, 직업 훈련, 치료, 주거복지 등과 함께 약물 의존이나 정서 질환,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기업이다. 1966년부터 보잉사와 장기 하청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일감을 획득하였고 파이오니어 인더스트리즈(Pioneer Industries)라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지원하는 메차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파이오니어 푸드 서비스즈 등 10여 개의 작은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1천 명 이상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8년 기준 연간 6400만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창출하여 필요한 경비의 99퍼센트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고용 대상자들의 직업 진입을 위한 철저한 재활 프로그램과 전문 경영에 있다. 사실 사회적기업 경영과 취업자 복무 관리는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와 같은 NGO들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전문 경영인을 CEO로 영입하고, 홍보 등 전문 영역은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경영 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대기업 등 외부의 투자도 받는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는 사회적 서비스 사업으로 알코올 중독자, 출소자, 노숙자가 재활 기간 중 거주할 집을 지원하기도 한다.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연간 1만 2천 명에 달한다.

# 알코올 중독자에 희망 주는 기업 리빌드 리소스



☎ 651-645-7055

🌐 <http://www.rebuildresources.com>

알코올 중독자 데이브는 수감된 상황에서,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에 어느 날 분노가 치밀었다. '나의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데이브는 6개월간의 집중 치료를 거쳐 알코올로부터 벗어났고, 곧이어 리빌드 리소스(Rebuild Resources)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순탄하지 않았다. 20년 넘게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온 데이브에게 정시 출퇴근, 의류 제작과 판매 작업 등 자기 규제력을 요구하는 작업 환경은 견디기 힘들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생겼지만 그때마다 수감 시절의 자신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집중했다. 사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리빌드 리소스 사람들 덕분이다. 데이브는 그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데이브는 현재 리빌드 리소스의 의류 프로모션 부서에서 일한다. 그는 2년 10개월이 넘도록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고, 이것이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리빌드 리소스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1984년 세인트 폴 미네소타에 설립되었다. 직업 훈련생 대부분은 사회 복귀 훈련 시설을 거친,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리빌드 리소스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실용적인 기술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독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절제와 자기 관리 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자존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 회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은 무엇보다 훈련생 스스로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워 서서히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력서 만들기, 컴퓨터 개인 과외, 직업 탐색, 회복 모임, 현장 직업 훈련 등이다. 현장 훈련은 이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전일제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직업 경력을 쌓고 일반 노동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안정적인 취업에 유용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스크린프린팅이나 자수를 사용한 의상에서부터 특별 이벤트용 유니폼, 프로모션 상품까지 가격과 서비스, 그리고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리빌드 리소스는 2010년 현재 예산의 80퍼센트는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0퍼센트는 개인, 재단, 기업, 교회, 봉사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돕는다 쇼 트러스트



☎ 01225-716300

🌐 <http://www.shaw-trust.org.uk/home>

피터는 9년간 배관공 일을 해 왔는데, 손목에 터널증후군이 생겨 1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좌절감에 빠졌다. 그러나 주치의가 배관공 일을 다시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자신도 계속 일하기를 원했기에 재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때 그는 쇼 트러스트(Shaw Trust)의 고문 마이크 버렐을 만났다.

마이크는 채용 담당인 동료 데이브에게 피터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고, 데이브는 피터를 만난 뒤 그가 자기-고용을 하는 배관공으로 창업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피터는 창업 실행 계획을 그렸고, 2004년 3월 두 번의 손목 수술에서 회복한 후 데이브에게 계획을 알렸다. 데이브를 비롯한 쇼 트러스트 파트너들은 창업 비용을 분담하는 등 온갖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쇼 트러스트는 피터가 난생처음 도전하는 창업에 초기부터 어려운 과정을 함께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었고 피터에게 많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피터는 2004년 5월 플릿우드 지역에서 '아쿠아 플러빙'을 창업했고 사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쇼 트러스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자선단체다. 영국 최대의 제3섹터 공급자이며 정부의 중요 파트너 중 하나다. 쇼 트러스트는 직원 수만 1600명이 넘으며 3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중 취약계층 비율은 18.4퍼센트로 '스톤월 작업장 평등 지수'에서 상위 100개 고용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쇼 트러스트는 중증장애인의 30~80퍼센트를 고용하는 '워크스텝', 이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브로킹', 장기계약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잡 리텐션' 등 3단계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한다. 고용정책은 각 장애인의 상태에 알맞은 직업을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고용주를 주요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용주와의 사업 공유'로 이뤄진다. 쇼 트러스트는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대기업 및 공공 부문, 제3섹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 형태의 고용주에게 고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 부문 서비스에서 공공기관과 25년 넘게 제휴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보건단체 등과도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왔다.

영국에서는 쇼 트러스트를 통해 매년 약 4천 명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연봉계약을 맺으며 그중 약 1천 명은 장기계약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처럼 큰 성과를 내는 바탕에는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고용정책이 고용 대상자 및 고용주 모두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25년 이상 관련 캠페인을 지속해 온 쇼 트러스트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있다.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정보 격차 해소한다

## 퍼스콜라



☎ 800-877-4068

🏠 <http://www.perscholas.org>

중학생인 쌍둥이 형제는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한 대밖에 없는 컴퓨터 때문에 매일 싸웠다. 하지만 얼마 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배달된 컴퓨터 한 대가 이들의 다툼을 해결해 주었다. 형제는 이제 각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과제도 하고, 웹 서핑도 즐기고, 때로는 엄마 몰래 게임도 한다. 엄마도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컴퓨터 수업을 듣고 조금씩 컴퓨터 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이 가족에게 평화와 즐거움을 준 산타클로스는 바로 사회적기업 퍼스콜라(Per Scholas)다. 미국에서는 연간 수입이 8만 달러인 가정의 95퍼센트 이상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연간 수입이 1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33퍼센트만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다. 빈곤으로 인한 정보 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퍼스콜라의 설립자 존 스투키다. 그는 환경보호를 기본으로 개인,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술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깨고자 1995년에 비영리 단체 퍼스콜라를 세웠다.



퍼스콜라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보기술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다. 150여 개의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컴퓨터를 약간 수리하고 재조립하여 저소득층 가구나 학교에 245달러(우리 돈 약 30만 원) 이하로 보급한다. 보급은 소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멘토 사업을 하는 '빅 브라더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퍼스콜라가 보급한 컴퓨터는 매년 증가해 25개 주 4만 가구를 넘어섰다.

둘째는 중고 컴퓨터 재활용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보기술 기반 기업들은 신형 컴퓨터로 자주 교체해 중고 컴퓨터 처리가 늘 고민이다. 퍼스콜라는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자료를 안전하게 삭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처리한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기증받은 약 30만 대 이상의 중고 컴퓨터 조립과 부속 폐품 처리를 통해 전체 수입원의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셋째는 고도의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IT 전문가로 길러 내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의 복지단체 및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18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컴퓨터 조립 및 수리에 있어서 최고 기술 수준을 인정하는 증서를 받게 되는데, 교육 참가자의 4분의 3 이상이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고 있다.

## 저소득층 가구 자산 설계 돕는다

### 셀프



☎ 513-868-9300

🏠 <http://www.selfhelps.org>

웨스트체스터의 크리스티나, 데이비드 부부는 1만 달러의 빚과 불안정한 직장, 그리고 형편없이 내려간 신용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커 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재정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 이사 문제로 전전공공하던 중 셀프(SELF)의 자산개발 프로그램을 소개받고는 곧장 참가 신청을 했다.

자산개발 전문가인 제리 브라운이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해 주었다. 매주 14시간씩 진행되는 경제 수업을 듣고 난 뒤 부부는 자신들의 자산에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자신들의 상황을 열심히 이겨 낸 끝에 1075달러를 저축했고, 셀프에서 2천 달러를 지원받아 더 넓은 자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저소득 가구를 돕는 셀프는 비영리 단체로, 버틀러 시의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자넷 클레몬이 1995년에 설립했다. 초기에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했지만 현재는 지역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법인이 되었다. 셀프는 지역사회의 가난을 이겨 내기 위해 전 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셀프는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3단계 지원 체계를 갖고 있다. 먼저 직업을 갖도록 하고, 다음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금전적 안정을 찾도록 자산 설계를 돕는다. 이 중에서도 자산 개발 프로그램은 셀프의 핵심 사업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집을 구입한 가격은 평균 82만 3천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셀프는 임파워 앤 임파워 원(Empower and Empower One)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능력 향상과 풀타임 고용, 불완전 취업자의 실업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주택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관리 시스템을 7800여 주택에 지원하고 있으며, 셀프의 절세 프로그램으로 482가구가 34만 7333달러를 환급받았다. 또 노숙자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해 주고 취업을 알선하며 영구주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더 불어 실업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면접에 필요한 옷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저소득 아이들이 학교에서 끼니를 굶지 않도록 학교와 함께 무상 혹은 저렴한 금액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셀프는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을 받는 동시에 누구나 저소득 가정에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셀프는 모든 저소득층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기업 일터 제공 주마 벤처스



☎ 415-371-0727

🌐 <http://www.juma.org>

“아이스크림, 버거, 라떼!” 청소년들의 밝은 목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싶으면 곧장 울동과 노래가 이어진다. 이들은 주마 벤처스(Juma Ventures)의 샌디에이고 매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다. 이 매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조카브드는 자신이 마음을 열고 점차 사회화되는 데 주마 벤처스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밝게 일할 수 있게 된 데는 주마 벤처스의 프로그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짚어 내기 때문이다.

주마 벤처스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진학 서비스, 재정교육, 직업 능력 개발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다. 조카브드도 장학금 지원, 대학 입학 정보 지원 등을 통해 대학 진학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얻었다. 조카브드의 친구 데이비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저축이나 재정 관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마 벤처스의 재정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이 밖에 주마 벤처스는 청소년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주마 벤처스는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다. 15~19세의 저소득 청소년들, 특히 기출 및 노숙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비영리 단체 LSYC(Larkin Street Youth Center)가 청소년 노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된 주마 벤처스는 1996년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15년 넘게 매년 400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창업이나 매장 내 승진보다는 인턴십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 다른 가게나 직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주마 벤처스가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데는 미국의 아이스크림 1위 업체 벤 앤 제리(Ben & Jerry)의 역할이 크다. 벤 앤 제리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주마 벤처스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야구장이나 미식축구장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주마 벤처스는 설립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오�클랜드, 샌디에이고, 워싱턴 DC까지 진출하면서 청년 사회적기업의 대표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릴린치 재단의 CEO 에디 베이아르델은 “주마 벤처스는 재정적 지식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선구자들”이라고 말한다.

# 위기 청소년에 손 내미는 기업 뉴 도어 벤처스



☎ 415-920-9200

🏠 <http://www.newdoor.org>

데비는 학교를 다니지도, 일을 하지도, 직업 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소년이었다. 잠시 사무직 근무를 해 보았지만 동기 부여가 안 되는 환경에서는 단지 간혀 있다는 기분만 들었고, 더 일하기 싫어지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저녁마다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뒤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무렵 친구에게 뉴 도어 벤처스(New Door Ventures)에 대해 들었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취업 준비 및 알선,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지원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뉴 도어 벤처스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그녀는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몸은 교육장에 있었으나 거기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경계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가자.”고 일관되게 말하는 뉴 도어 벤처스 사람들의 태도와 메시지에 그녀는 용기를 얻고 변화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뉴 도어 벤처스의 파트너 기업으로 평판이 좋은 카페 ‘미션파이’에서 여름 기간 인턴으로 일했다. 곳은 잡일부터 베이커리와 케이터링까지 현장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했다.



뉴 도어 벤처스는 샌프란시스코 하이트 애쉬베리 지역의 노숙자를 돕기 위해 1981년 설립된 '골든 게이트 커뮤니티'가 모태다. 골든 게이트 커뮤니티는 지역교회 및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아 출발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음식, 의류, 쉼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임시 일자리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골든 게이트 커뮤니티는 조직의 사명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직업 훈련, 기술 습득, 파트너십에 두고 이름을 뉴 도어 벤처스로 변경했다.

뉴 도어 벤처스의 사업은 노숙, 약물 중독, 극단의 빈곤에 처한 14~21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지원을 받은 청소년 129명 중 87퍼센트가 연방 빈곤 기준인 1만 830달러 이하로 살았고, 60퍼센트는 약물을 남용했으며, 49퍼센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였다.

그런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뉴 도어 벤처스를 통해 77명은 인턴십 참여로 임금을 받아 보았고, 93퍼센트는 인턴십 이후 새 일자리를 찾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 인턴십을 통해 일에 대한 경험을 얻고, 개인별 워크숍을 통해 인터뷰 준비부터 영양관리까지 일하는 몸을 만들며, 인생의 경험을 넓혀 줄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일할 의욕 준다  
K2 인터내셔널



☎ 045-750-0039

🌐 <http://www.k2-inter.com>

후쿠하라는 전형적인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었다. 세상을 귀찮고 비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고독하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취직해서 일하러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되어서 만나는 것도 피하며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이런 후쿠하라에게 삶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K2 인터내셔널(K2 International)이 젊은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Y-MAC 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니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차츰 분위기에 적응하였고, 입학 후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친구도 생겼다. 20대 들어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즐거움도 맛봤다.

K2 인터내셔널은 1989년 ‘콜럼버스 아카데미’로 활동을 시작하여 20년에 걸쳐 사회 통합이 어려운 젊은이들의 자립을 지원해 왔다. 대상은 16세부터 35세 사이의 미혼 남녀로,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 혹은 1년 이상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의무 교육 종료 후 1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K2 인터내셔널은 여러 단체와 지역별 중점사업을 펼친다. K2 인터내셔널 재단은 그룹의 핵심 법인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을 돕는 사업을 펼친다. 젊은이 자립학원 Y-MAC를 운영하면서 취업 체험 사업과 유학 사업, 강연회를 운영한다. 콜럼버스 아카데미는 보호자 모임이 발전하여 2000년에 NPO로 법인화되었다. 지방자치정부와 협동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사업과 방문 사업, 공동생활 프리스쿨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유한회사 K2 푸드 서비스는 취업 지원 사업 중 자영 점포가 발전하여 법인화한 것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다. 오코노미야키 포장마차, 광고 및 홍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NPO 법인 휴먼 펠로우십은 청년 복지와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 2007년 가나가와현의 인증을 받아 설립되었다. 청년 무직자에 대한 그룹홈 서비스와 케어홈, 취업 지원을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Y-MAC(Yokohama Modern Apprenticeship Center)는 입학생이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연수 기간을 거쳐 적합한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포츠, 여행,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강의, 실천적인 비즈니스 강좌, 역할모델 프로그램, 공장 자원봉사 활동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동안 약 1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자영 점포 취업자 수는 총 120명에 이른다. 지역 자치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 사업도 활발한 편인데, 지역의 많은 기업에서 정사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자리를 얻고 있다.

젊은 잠재력 일깨워  
경력 쌓는다  
에바 피닉스



☎ 416-364-4716

🌐 <http://www.phoenixprintshop.ca>

에바 피닉스(Eva's Phoenix)는 설립되기 전에 캐나다 인적자원개발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당시 16~30세에 해당하는 50명의 노숙인을 에바 피닉스 홈페이지 구축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캐나다 토론토 지역 젊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주거, 직업 훈련,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 에바 피닉스가 세워졌다. 자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경력 설계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지향성은 '진짜 기술, 진짜 잠재력, 진짜 경력'이라는 슬로건에서 엿볼 수 있다.

고용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짜여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7주 중 5주는 경력 탐색 및 준비(Career Exploration and Preparation) 과정으로 청소년 8명이 5주간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력 탐색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직업 훈련(On-the-Job Training)으로 인턴십 과정을 12주 동안 거치는데 사무 행정, 서비스업, IT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 멘토와 함께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한다.



에바 피닉스 프린트 숍(Eva's Phoenix Print Shop)은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젊은이들의 고용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만약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이 사전 교육이나 취업 알선에 머물렀다면 고용 지속성은 불투명했을 것이다. 취약계층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으로 교육시킬 부모의 부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교육 과정, 빈곤으로 인한 불안감이 쌓여 만들어진 생활 습관,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망이 없어 생기는 불신 등이 문제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면, 표준화되고 분절된 고용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은 반쪽짜리 해결책밖에 될 수 없다.

'진짜 직업, 진짜 잠재력, 진짜 경력'은 직장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경력 개발이 가능한 실제 업무를 익힌다는 뜻이다. 더불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선배나 동료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일터는 피고용인에 대한 광범위한 보살핌과 가르침,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에 가능하다.

프린트 숍은 에바 피닉스의 주거 지원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에서는 강도 높은 기술 훈련을 제공하며, 경력 개발 장학금으로 5년 동안 매년 1천 달러까지 지원한다. 또 젊은이들의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곳을 거친 젊은이가 애써 얻은 직장을 떠나더라도 최소 2년 동안 다른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생애적 관점에서 고용과 경력을 바라본다.

#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직 전문 서비스 신시내티 워크



☎ 513-744-9675

🌐 <http://www.cincinnatiworks.org>

제니퍼는 3년 전만 해도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을 무능력자로 여기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그녀가 신시내티 워크를 통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저는 이곳을 통해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곳에 다닐 수 있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해 준 신시내티 워크(Cincinnati Works)가 저에겐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니퍼만이 아니다. 벌써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시내티 워크를 통해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데이브, 리안느 부부는 사회 고질병이 되어 버린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 1996년 신시내티 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가난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의지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직장을 가지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들은 신시내티 워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신시내티 워크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발적 의지와 열정이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4단계로 운영되는데 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먼저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장 윤리, 근로 태도, 계산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을 익힌다. 다음으로 신시내티 워크의 가장 효과적이고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고용 전문가들은 구직자의 적성 발견과 구직 서류 작성을 돕는 것은 물론 채용이 될 때까지 면접 등에 끊임없는 피드백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구직에 성공한 이후에도 직장 적응과 경제적 자립에 꾸준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자산 개발과 수입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안정에 이르기까지는 2~5년 정도가 소요된다. 구직자들은 가족처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회원으로 가입된다. 잘 훈련된 구직자들이 적절한 곳으로 배치되려면 고용주와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신시내티 워크는 2010년 현재 70곳의 고용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은행, 식당, 건강센터, 소매점 등 구직자들이 전문적 기술이 없더라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연관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시급 9~10달러의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고용주들 또한 신시내티 워크와의 의사소통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신시내티 워크는 2009년에 78퍼센트 고용 유지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냈다.

직업 구하는  
모두에게 열린 문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



☎ 415-391-3600  
🌐 <http://www.jvs.org>

멕시코에서 자란 열아홉 살 메이라는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Jewish Vocational Service)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 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꿈인 대학 진학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마르티 발렌틴은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고 자신도 남편의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며 편히 살아왔으나,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과 회사의 위기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그녀는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의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채용 정보를 찾는 법과 인내심을 배웠다. 그녀는 이 단체의 지원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틈새 일터를 찾았다. 현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박물관과 지역 정보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비록 임시직이긴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굳은 의지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는 1973년 설립 당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 대학 졸업생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1980~1990년대 구소련 붕괴로 많은 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단체는 이제 직업을 구하는 모든 이를 위해 활동한다.

이 단체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구직 희망자들이 일터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또 일대일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노년층 근로자 및 유대인 커뮤니티에는 특화된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의 학교 및 커뮤니티 등 25개가 넘는 파트너십 기관에서 매년 14~24세 청소년 700명과 만나며, 이들에게 6개 핵심 서비스를 통해 기술교육, 유급 인턴십 제공, 대학 진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트랜스젠더 경제 자립 프로그램은 트랜스젠더 지역 커뮤니티 센터, 트랜스젠더 법률 센터 등과 협력하여 일대일 밀착형으로 운영하는데, 구직 컨설팅 외에 트랜스젠더 직원이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 특화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기관 및 기업의 기금, 전문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된다. 쥬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는 유대인 커뮤니티 연맹의 지원 외에 주요 스폰서 모집과 기부자 그룹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2011년에는 150만 달러의 프로그램 지원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곤 여성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  
위민즈 빈 프로젝트



☎ 303-292-1919

🌐 <http://www.womensbeanproject.com>

클레나는 결손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생계 유지 방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강요받았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그녀에게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설계한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이야기였다.

위민즈 빈 프로젝트(Women's Bean Project)는 그녀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스스로 필요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그녀는 위민즈 빈 프로젝트를 '희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빈 프로젝트가 제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그리고 제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는 제 표현력으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제게 이런 기회를 주고 저를 믿어 준 빈 프로젝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것뿐입니다."

빈 프로젝트는 그녀가 이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현실에 눈뜨고, 안정된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꾸준히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북돋웠다. 그녀는 처음 빈 프로젝트에 왔을 때 자긍심이 많이 부족했지만 일 년간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았고 지금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다.



1989년 여성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조쉬 에이어는 쉼터가 여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전은 제공해 주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500달러어치 콩을 사서 여성 노숙자 두 명과 함께 콩 수프믹스를 만들어 파는 직업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꼽히는 위민즈 빈 프로젝트의 출발이다.

이 회사의 목표는 여성 노숙자나 장기 실업 여성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갖게 하여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훈련생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작업 과정을 익힌다. 훈련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이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며 주거문제나 육아, 건강관리 등 빈곤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기초적인 필요를 채우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빈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회사의 직업 훈련 과정은 제품 생산,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로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졸업생들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에 인턴사원으로 들어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이처럼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덕분에 이 회사 직업 훈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매우 높다. 위민즈 빈 프로젝트의 성공 포인트는 무엇보다 빈곤 여성들의 기초적인 필요를 채워 이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실제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개도국 여성 위한 보건 위생 교육

### SHE



✉ [supportshe@sheinnovates.com](mailto:supportshe@sheinnovates.com)

🏠 <http://www.sheinnovates.com>

넝마, 나무껍질, 진흙. 이것들은 무엇일까? 쓰레기? 건축 자재? 아니다. 정답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생리 기간 중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사는 수백만의 여성들은 1년에 50일 정도는 학교에 결석하거나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 생리 때마다 적절한 생리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품 생리대가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고, 그 대신 넝마 조각 따위를 생리대 삼아 쓰는데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천의 위생 상태가 몹시 좋지 못하다. 이는 결코 쉬쉬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비위생적인 생리대 때문에 여성들은 매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골반내감염증 등의 질병에 걸린다. 또 생리 때마다 활동 제약을 받아서 학교에도,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제대로 된 위생적인 생리대’를 마련해 주면 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버드 MBA를 졸업한 엘리자베스 샤프는 SHE(Sustainable Health Enterprises)를 설립해 현재 르완다에서 위생적이고 친환경이면서도 저렴한 생리대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SHE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말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적절한 생리대가 없어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HE는 르완다에서 여성의 생리대 사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SHE는 위생적 생리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 위생 교육 및 캠페인을 지원한다. 또 현지 여성들에게 위생적인 생리대의 생산 기술과 비즈니스 기법을 교육하고,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소액신용대출제도를 운용한다. 그와 동시에 수입 원료 대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로 생리대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원료를 손쉽게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SHE는 르완다에서 소규모로 생리대를 생산하고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50명의 '지역 보건 일꾼(Community Health Worker)'을 배출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로 현재 5천여 명이 보건 위생 교육 및 비즈니스 교육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료를 수입해 생리대를 만들고 있지만, 바나나 나무 섬유로 만든 생리대가 임상 실험을 통과하면 지역의 원료로 생산이 가능해져 친환경적인 생리대를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그렇게만 되면 바나나 재배 농가에 부가 수입을 안겨 주고 원재료 가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신 건강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루비콘 프로그램



☎ 800-644-0770

🏠 <http://www.rubiconlandscape.com>

루비콘 프로그램(Rubicon Programs)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1973년 캘리포니아 주 리치먼드 지역 주민들이 설립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심리적,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총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장애인과 노숙자로, 이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소를 섬세하게 반영한다. 개인의 정신 건강, 주거 불안정, 법률 서비스를 일자리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2009년에 588명의 정신적 장애인에게 정신 건강 치료를, 1001명에게 주거 지원을, 103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신 건강 치료팀은 정신병 및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거 지원은 정신적 장애인들과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시 거주 및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며 방학 중에는 법대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그뿐 아니라 직무 훈련, 경력 개발, 일자리 알선, 인력 유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루비콘 프로그램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루비콘 프로그램**은 그 산하에 설립한 2개의 사회적기업이 놀라운 실적을 거두면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그 하나는 ‘루비콘 조경’이다. 루비콘 조경은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부의 엘세리토 지역에서 소규모 중요 소매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루비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은 호텔, 리조트, 공원 등 조경 사업을 망라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2001~2002년에는 38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규모 있고 튼튼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비약적 성장은 강도 높은 훈련, 직장 내의 원만한 인간관계, 취약계층을 위한 총체적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데서 비롯된다.

또 다른 사회적기업은 ‘루비콘 베이커리’다. 이곳은 전문가를 고용해 품질을 높은 소셜 프렌차이즈로 유명하다. 2003년 샌프란시스코에 41개 매장을 보유한 이래 2009년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루비콘 베이커리는 지역의 개인 사업자 앤드류 스토로프에게 매각되면서 흔치 않은 사례를 남겼는데, 바로 매각의 조건으로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과 루비콘 베이커리가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이익은 루비콘 프로그램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세워 성사시킨 것이다. 이는 비대하게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본래의 사명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단계에 맞게 민간의 시장 영역에 안착한 실험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장애인과 일하는 것,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

### 렘플로이



☎ 0845-155-2700

🌐 <http://www.remploy.co.uk>

렘플로이(Remploy)의 임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을 택했다. 장애인 고용 기업 렘플로이는 노동부와 국민연금, 그리고 고객과 상업적 관계를 맺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며, 작업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렘플로이의 노력은 영국 최대의 유통회사 ASDA와 같은 파트너 회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ASDA의 인사책임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렘플로이와 5년 전부터 일을 해 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인 필요에 따른 것인데, 장애인을 포함한 관련 인구가 10퍼센트에 이르고 이들과 일하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한다.

ASDA의 매장 매니저인 레슬리 스미스는 “장애인 두 명과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100퍼센트 만족할 만큼 실수 없이 일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또 그는 “장애인과 일하는 것은 분명 좋은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는 일”이며 “일터와 일의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렘플로이를 비롯한 더 많은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일을 창조하는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영국은 정부 주도 공공 서비스 위탁 업무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발전했다. 램플로이는 정부 주도형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1943년 국회의원 톰 린슨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장애인을 생산 활동에 진입 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제안하여 출범했다. 이 제안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에 반영되어 이듬해 정부의 전액 출자로 정부의 특별후원기업인 ‘장애인고용공사’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1946년 램플로이 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램플로이는 자선 기부와 정치 기부는 받지 않으며 정부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 시장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는 운영 원리인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워크스텝’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램플로이는 직접 54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 기준으로 총 3천 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더불어 7천 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기술 훈련을 시킨 후 TESCO 나 ASDA 등 일반 기업체에 파견하였다. 이는 영국 전역에 퍼져 있는 27개 지부 채용 센터를 통해 운영한다.

램플로이의 사업 분야는 전자제품 중간 조립부터 의류 및 가구 생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램플로이의 주요 자금원은 각 사업체를 운영한 수익 약 60퍼센트와 주정부의 기금 수익 약 40퍼센트로 이루어진다.

## 당신의 기부가 장애인을 돕는다 굿윌



☎ 301-530-6500

🏠 <http://www.goodwill.org>

‘당신의 기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홍보 문구가 입구에 크게 걸려 있는 콜럼비아 윌럼메트의 한 매장. 이곳은 굿윌(Goodwill Industry)이 운영하는 곳이다. 매장에서서는 짐이 유리 화병, 옷, 장난감 등 방금 세척과 수리를 마치고 차량에 실려 온 기부 물품들을 조금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카터에 옮겨 싣는다. 그리고 반듯이 정리된 매장 진열대 곳곳을 돌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열한다.

짐은 생후 6주 만에 뇌성마비를 앓은 후 불편한 몸이 되었고, 그에게 닥쳐온 아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짐 때문에 이 매장의 기부자가 된 그의 누나 새넌은 “굿윌 덕분에 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으며, 굿윌은 짐에게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작업장과 재활용품 판매 시설 등을 운영하는 생산적 복지 경영 조직인 굿윌은 1902년 에드가 헬름 박사가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 시작했다.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생기는 수익금을 장애인의 일자리 및 재활교육에 사용하며, 미국에서 18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다.



굿월은 장애인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별 교육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을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접수, 2단계 평가, 3단계 서비스·전달, 그리고 4단계 결과의 순서다. 접수 단계에선 해당 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 단계에선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평가하며, 서비스·전달 단계에선 장애인에게 적당한 굿월의 서비스를 찾는다. 그리고 결과 단계에선 맞춤 훈련을 거쳐 최적의 작업장에 배치한다.

굿월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영한다. 천연비누 및 칫솔 제조, 재활용 잡화 및 가구 판매가 자립 기반이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180개 지부와 2324개의 리테일 스토어가 있고, 151만 명에게 직업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연간 예산 규모만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스트베이의 3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스트베이 굿월 인더스트리는 학력, 언어 구사 능력, 빈곤, 경력 부족,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직업개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자활센터는 300개가 넘는다. 이 지역 굿월은 2006년 기준으로 134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카리다드 인더스트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굿월 아카데미,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홀리스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화재의 아픔, 세차장에서 씻어낸다 선샤인



☎ 2-2507-8006

🌐 <http://www.sunshine.org.tw>

2009년 7월 선샤인 카워시 센터의 새로운 지점이 문을 열었다. 1992년부터 쌓은 세차 비즈니스 경험으로 5~7명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롭고 좀 더 작은 큐이린(Kui-Lin) 지점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기업 모델을 통해 선샤인 복지재단(Sunshine Social Welfare Foundation)은 세차 비즈니스의 비용을 감소시켰다.

큐이린 지점은 훈련과 고용을 통해 장애 관련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차 센터 모델은 호슈 유테(HSU Wu-Te)가 처음 제안했는데, 올해 44세인 호슈는 15년 전에 이웃집 화재 진압을 돕다가 큰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 2~3급 장애를 유지해 왔다. 화재는 그의 손에도 심한 화상을 입혔고 그는 결국 손가락을 잃었다.

1997년 호슈는 선샤인 세차 센터에서 차를 건조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차츰 손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다. 5년간의 직업 훈련과 강도 높은 일을 통해 그는 자동차 관리 전문가가 되었고, 직접 세차 비즈니스를 해 보기로 결심했다. 선샤인은 호슈 유테의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큐이린의 세차 사업 책임자로 임명했다.



선사인 사회복지재단은 화재 생존자와 화재로 인한 안면 손상자에게 보다 밀도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이 서비스에는 사회사업가, 직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정신상담가, 직업상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선사인 재단에는 97명의 스태프가 일하고 있다. 선사인 사회복지재단은 타이완의 4개 지역에서 국가 지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이페이에 재활센터와 하프-웨이 하우스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선사인은 1981년 설립 이래로 8천 명이 넘는 화재 생존자와 안면 손상자를 지원해 왔다.

초기에는 안면 손상자들을 위해 타이완 전역을 가로지르며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몇 년 후 선사인은 안면 손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한 효과적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사업 대상층을 넓혀 화재 생존자는 물론 해면혈관종, 신경섬유종증 등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선사인의 주요 수입원은 후원금이 전체의 70.7퍼센트로 가장 많고 정부 보조금과 자선사업 수입이 그다음이다. 지출은 신경정신 복지 서비스와 신체 훈련 서비스, 사회교육 등의 순서다.



가디아 솔라 태양열 조리기로 연기 없는 마을  
탐스슈즈 일대일 소비와 기부로 희망을 만드는 신발  
STA 전력망에서 소외된 시골에 전기를 공급하다  
베어풋 칼리지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화천한옥학교 전통을 세우는 목공 기술인  
공정여행 풍덩 지역 주민의 삶에 기반한 여행  
이장 전원 마을 짓는 생태 기업  
부안시민발전소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위해  
안덕환경사랑회 하천도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철딱서니학교 방과 후에 배추를 키우는 아이들  
서천군귀농인협의회 도시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과 상생  
영농조합법인 새벽 지구를 살리는 순환 영농, 유기농 채소  
청람 새싹과 육묘를 키우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지역을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진안군뿌리협회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다  
흙살림 민간 최초의 친환경 유기농 업체  
송천 떡마을 IT로 홍보와 수익을 극대화  
황성텃밭공동체 시골집 어머니가 보내주는 먹을거리  
청송시니어클럽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실버  
토리식품 지역을 이롭게 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명살림 올리 비지로 만든 친환경 버거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최고의 관광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임실 치즈 마을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 마을  
세심마을 도농 간 교류를 사업화하다  
콕핏아트 공예품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그레이스톤 베이커리 고용을 위해 빵을 굽는 제과점  
파이오니어 휴먼 서비스즈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리빌드 리소스 알코올 중독자에 희망 주는 기업  
쇼 트러스트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돕는다  
퍼스콜라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정보 격차 해소한다  
셀프 저소득층 가구 자산 설계 돕는다  
주마 벤처스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기업 일터 제공  
뉴 도어 벤처스 위기 청소년에 손 내미는 기업  
K2 인터내셔널 젊은이들에게 일할 의욕 준다  
에바 피닉스 젊은 잠재력 일깨워 경력 쌓는다  
신시내티 워크 가난한 이를 위한 구직 전문 서비스  
주이쉬 보케이셔널 서비스 직업 구하는 모두에게 열린 문  
위민즈 빈 프로젝트 빈곤 여성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  
SHE 개도국 여성 위한 보건 위생 교육  
루비콘 프로그램 정신 건강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렘플로이 장애인과 일하는 것, 더 나은 비즈니스 기회  
굿월 당신의 기부가 장애인을 돕는다  
선사인 화재의 아픔, 세차장에서 씻어낸다

